

표 2 : 조선인안부조사명부게재날짜 (조선총독부)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성일보	매일신보	게재자수
제 1 차	9/24, 4 면	9/23, 2 면		9/23, 5 면	791
제 2 차	9/26, 4 면	9/24, 4 면		9/26, 3 면	451
제 3 차	9/27, 4 면	9/27, 2 면		9/27, 3 면	620
제 4 차	9/28, 4 면	9/28, 2 면		9/28, 3·4 면	967
제 5 차	9/29, 4 면	9/29, 2 면		9/29, 4 면	313
제 6 차	10/1, 3 면	10/1, 2 면		10/1, 4 면	201
제 7 차	10/3, 3 면	10/3, 2 면		10/3, 4 면	188
제 8 차	10/4, 4 면	10/4, 2 면		10/4, 4 면	803
제 9 차	10/5, 4 면	10/5, 2 면		10/5, 7 면	130
제 10 차	10/6, 4 면	10/6, 2 면		10/6, 4 면	454
제 11 차	10/7, 2-3 면	10/7, 2 면		10/7, 3 면	106
제 12 차	10/8, 3 면	10/8, 2 면		10/8, 4 면	266
제 13 차	10/10, 2-3 면	10/10, 2 면		10/10, 2-3 면	105
제 14 차	10/13, 2-3 면	10/13, 2 면		10/13, 2-3 면	104
제 15 차	10/14, 2-3 면	10/14, 2 면		10/14, 4 면	78
제 16 차	10/17, 2-3 면	10/17, 2 면		10/17, 3 면	87
				합계	5,664

주 1 : "3·4 면"은 3 면·4 면각각에게재되어있다는의미이다.

주 2 : "2-3 면"은 2 면과 3 면과의사이에있는 "주름"(신문측면의 안쪽)에걸쳐게재되어있다는의미이다. 그

러나축쇄판이나데이터베이스등에서는"주름"의부분이대부분결락된상태로보존·공개되고있기때문

를게재했다. <동아일보>도 1923 년 9 월 24 일부터 10 월 17 일까지총 16 회 조사결과를게재했다. 표 2 를 참조.

에현재모든정보가확인할수있는것은<조선일보>에게재된것만이다.

주 3 : 게재자수는<조선일보>에게재된것을기준으로계산했다. 성명이불명한 자도포함한다.

조선총독부는조선인들이더이상독자적진상규명조사를하지않기 위해서조선민족의 자기인식을자극하지않도록, 조선인학살이라는 '불온'한 정보에의해 '치안'이악화 되지않도록단순히조선인측의정보를통제할뿐만아니라,조선총독부 스스로가조사하는 형태로조선인학살을은폐하려고시도한것이아닐까생각된다. 그러나조선총독부가예상한 이상에,관동대지진조선인의삶과 죽음을둘러싼안부조사는조선인들의민족의식을자극하게되고, 그후조선인의 '죽음'= 학살사건에대한관심을높이기계기에도 된것이아닐까.

맺음말

이상으로일본에있는조선인동포의안부에대한걱정에서시작된식민지조선의관동대지진에대한조선인들의반응은이후지진 피해지역에서조선인들의귀환을거쳐,조선인들의 '삶'에관심이쏠리고간다. 그리고조선인스스로가지진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피해를당한조선인을 '구제'하자는활동을전개하고조선인들의 '안부조사'보고도실시했다.

조선총독부는구제회와같은조선인이 '동포'를위해 '좌우합작'과 같은조선전체의운동이전개되는것을매우두려워했다. 그것은즉, 1919년 3.1 운동의재래(再來)에대한예감과불안이발로(發露)된것이아닐까. 조선총독부에게조선인에의한집단행동은그들의민족의식을자극하는행동이라고간주했기때문에그들을 '융화', '회유'시키려고조선인과일본인이함께 '거국일치' (擧國一致)인 '구제'를하도록호소한것이다. 이러한'구제'는 조선인 '동포'가 아니라 '국난'(國難)을위해바뀌실시하려고 한것이다.

그런데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노골적탄압을 할 수없었다. 따라서'구제'에인계되어이루어진조선인의안부조사를둘러싸고조선총독부가스

스로조선인만을대상으로한안부조사를실시할 수밖에없었다. 그만큼지진의조선인의안부는당시조선사회에있어서무시할수없는민감한문제였던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조선인의안부조사는관동대지진에서조선인의 '삶'과 '죽음'을둘러싸고흔들리게되기도했다. 안부조사는결과적으로는조선인동포의 '삶'을충분히밝힐수없었기때문에,그진상을더욱분명히하려고,그 후 '재일본관동지방이재조선동포위문반'(이하, 위문반)을만들고 "참살(慘殺)된시체또는여기저기흩어져있는해골이나또는무덤을참배하면서여러곳을견문⁵³"하는 조사활동이전개되어갔다⁵⁴. 조선인의안부조사는조선인들의귀환과 '구제'활동에서릴레이를이어받아위문반의활동으로이어질수있는배턴이 되었던것이다.

⁵³李鐵,「語り盡せぬ當時の慘状」,金秉稷編著,『関東震災白色テロルの真相』,朝鮮民主文化団体総連盟,1947년,22 쪽.

⁵⁴위문반의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山田昭次,앞의 책을 참조.

간토대학살의 피신자들과 그 정신적상처

정영수

(일본조선대학교)

- | | |
|---------------------|------------------|
| 1. 연구방법 | ②조인승 |
| 2.간토대학살으로부터의 피신 | ③황의호 |
| 1)도망치거나 숨다 | 2)유가족의 고통 |
| ①필사로 몸을 감추다 | ①자살 |
| ②구속과 도망 | ②악몽 |
| 2)일본인행세 | 3)집단적트라우머 |
| 3. 대학살이후의 정신적상처 | ①김일면의 《상기》와 《동화》 |
| 1)체험자의 트라우머(trauma) | ②해방-기쁨과 공포의 혼재 |
| ①문무선 | 4. 맺음 |

1. 연구방법

제목에 있는 《간토대학살 (關東大虐殺)》이란 1923년 9월 1일의 간토대진재 아래서 일본의 군,경찰,자경단(自警團)이 감행한 조선인대학살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식민지해방직후 재일조선인들의 대중단체였던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이중앙기관지나 기념일투쟁방침속에서 썼는바본 보고에서는 피해당사자의 동향에 접근하는 보고취지에 따라 역사용어로서 사용한다.

보고의 대상은 간토대학살이후를 살았던 재일조선인들의 동향이다.이 주제와 관련하여 먼저 재일조선인과 폭력의 관계에 접근하는데서제기되는 방법론상의 문제를 논한다. 현대일본의 역사학은 1980-90년대를 거쳐 조선사와 재일조선인사의 분야에서 지배-저항의 2항대립의 구도를 비판하고 오히려 량자의 《공범관계》나 호상련관을 강조하는 식민지근대성론과,그것과는 별차원에 살고있었다는 민중의

일상적인 질서를 중시한 사회사,민중운동사연구가 진척되어왔다¹.

그러한 속에서 재일조선인사회사연구의 도노무라마사루(外村大)는 간또대학살 등을 사건사(事件史)적으로 강조하는것으로써는 생활주의로 일관했던 민중세계를 그릴수 없다고 하면서 내면에 관통한 차별과 억압으로 하여 재일조선인은 지배체제에 용이하게 편입되어있었다고 주장한다².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노무라는 협화회(協和會)체제하에서 자기 스스로《동화》하는 조선인의 존재를 강조하고있으나 그 존재는 식민지근대성론적인 립장에 서면서 선험적(先驗的)으로조정되어있다.보고자는 폭력에 맞서 정신적고뇌속에서 살아온 조선민중의 행동과 그 의미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폭력과 생활의 구조적련관의 분석은 대학살의 경험과 재일조선인의 그후 동향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과제이다.

한편에 도노무라의 민중사에 의문을 제기한 조선민중사연구의 조경달(趙景達)은 도노무라와 반대의 의미에서 민중은 생활주의로 일관하였기때문에 지배체제에 용이하게 편입될수 없었다고 론하고있다³.그러나 량자는 생활주의를 분석의 기조로 하여 일상(日常)의 질서를 중시함으로써 식민지범죄와 조선민중의 생활,운동을 때여서 파악하고있는것이 공통점이다.과연 대학살이후를 산 재일조선인이란 그러한 정태(靜態)적인 존재였던가.

보고자는 재일조선인사에 있어서 간또대학살이 가지는 역사적의미가 아직 충분히 자리매김안되어있는 연구상황은 이러한 민중과 폭력을 둘러싼 방법론에일정한 문제의소재(所在)가 있다고 본다.

본 보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현대일본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적성찰에 기초하여 재일조선인사와 간또대학살의 관계성을 해명하는 시도로써 피학살의 공포심에 착목할것이다.특히는 대학살의 정신적인 피해로 조선인들속에 심어진 공포심이 여

¹신창우(愼蒼宇)「『民衆』の問い方を問い直す―朝鮮近現代史・日朝關係史から」歴史学研究会編『第4次現代歴史学の成果と課題』(一卷,績文堂出版,2017)를 참조.

²外村大『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変容・構造―』緑蔭書房,2004.

³趙景達『植民地朝鮮の知識人と民衆―植民地近代性論批判』有志舎,2008.

러 신체적 행동에 나타난 문제를 포착한다⁴.

보고에서는 먼저 간또대학살에 직면한 조선인들의 여러가지 피신행동에 주목하여 그 트라우머(trauma)적 체험을 파악한 토대우에서 대학살이후에 남은 정신적 상처로서 생존자나 유가족의 고통을살펴본다.또한 그것이 체험자에 머물지 않았다는것, 일본패망전후한 시기의 재일조선인사회의 동향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문제도 함께 가미할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구술자료는 1963년에 조선대학교에서 간행된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와 보고자가 생존자의 가족, 유가족들에서 수집한 증언들이다.

2. 간또대학살로부터의 피신

먼저 간또대진재시대학살에 직면한 조선인들의 피신에 대하여, 피학살의 공포심으로부터 나타난 도망치거나, 숨거나,일본인행세한 여러행동을 파악한다.

1)도망치거나 숨다

①필사로 몸을 감추다

군대가 주도하여 대학살을 감행한 요꼬하마(横浜)에서 일하던 윤석기(尹錫器)는 죽자살자 도망치고 배속에 몸을 감추었다. 그의 아내 문무선(文戊仙)에의하면《지진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안뜬데에 갑자기 살륙입니다.(남편은)함께 있는 동포들과 필사로 도망쳤지만 결국 도망칠수 있었던것은 2명만이였습니다》,필사로 도망쳐 《석탄을 운반하는 배에 몸을 감추고 그속에서 며칠이나 지냈다⁵》고 한다.문무선자신도 도쿄 오오이마찌(大井町)에서 방직공으로 일하던데에 대지진을 당하여 일본

⁴이와같은접근법은프란츠파논 (Frantz Fanon) 의피식민자에대한립상보고에서시사를받고있다.파논은 알제리아식민지전쟁하에서의반응적증상의출현을학살과탄압의분위기와식민지권력에직면한원래주민들의근육의견직(硬直),주저,거절의문제포착하여식민지전쟁자체에대한고찰을촉구하고있다(Frantz Fanon 「植民地戦争と精神障害」『地に呪われたる者』みすず書房,1996).

⁵文戊仙「關東大震災を体験して」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編『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関東編 1』柏書房,2002.

인집주인이 살려주어 숨고있었다.그러나 고향사람이 일본인에게 항의하러간다고 하여 나간채 자경단에 참수(斬首)당하였고죽창(竹槍)에 박힌 그 목이 자기 눈앞을 지나갔다는 억울한 사실을 증언하고있다.

②구속(拘束)과 도망

조선인에 대한 검속(檢束)은 대진재직후로부터 시작되어 특히는 9월 3일부터 《후페이센진(不逞鮮人)》인가 《료센진(良鮮人)》인가의 《선별》을 위한 총검속이 전개되는속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구속되었다.

조인승(曹仁承)은 수용된 도쿄의 페라지마(寺島)경찰서에서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있다.《독꼬시쯔(特高室)에서 이름,본적지,현주소,직업 등을 대라고 강요당하고...저녁에는 독꼬시쯔는 사람으로 가득찼다》. 《우리는 경찰서의 뜨락에서 밤을 새웠다.어느새에 그토록 많이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동포들은 다시 죽이러 온다는 공포심으로 일제히 도망친것이다》.조인승자신도 《이대로 가만히 살해될수 없스다는 마음으로 정신없이경찰서의 해자(堀)에 뛰여올랐다》.그러나 밖에 있는 자경단에 들켜 그들은웨치면서 습격하여왔다고 한다.

간또대학살연구자의 강덕상(姜德相)은 검속당한 조선인들은독꼬나이센가(特高内鮮係)의 심문을 받아 《처분》이 결정될때까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면서 《생명에 대한 불안과의 대결을 매일 강요당하는 정신적학대행위는 없다. 육체적고통보다 정신적고통으로 쓰러진 사람도 많았다⁶⁾》고 지적하고있다.

다음으로 죽자살자 피신한 리성구의 사례를 보자.

⁶⁾姜德相『關東大震災・虐殺の記憶』青丘文化叢書 9, 青丘文化社,2003.

리는경찰의 심문에 잡혀 가져다니던 동아일보에 우연히 기재된《총》의 한자로부터 《독립군》이아닌가고 의심받아 도쿄 오오쓰카(大塚)경찰서에 련행되었다⁷.일주일후 겨우 석방되면서집까지 돌아갈 길을 아무에게나 물으면 《조선진(朝鮮人)이 있다!》고 되니 간장을 판매하는 집의 처녀에 물었다고 한다.길을 가르친 다음에 처녀는 곧 《거기에 조선진이 간다!》고 웨쳐 자경단이 쫓아왔다.잡히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하는수 없이 파출소에 달려 들어가 구원을 청하였으나 파출소안에서 자경단에폭행을 당하여 어쩔수 없이 방금전까지 수용되던 오오쓰카경찰서에 전화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경찰관한테서 구타당하였다.이처럼 경찰과 민중에 포위되던 상황속에서 피신은 극도로 곤난하였다.

2)일본인행세

앞서 본 조인승과 리성구의 체험에 있는것처럼 민중과 경찰에 《포위》된 상황속에서 도망치고 숨는 장소는 매우 한정되었다.당시 지진에 의한 화재속에서 못과 강에 피난하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았으나 조선인경우 학살을 면하기 위하여 못이나 강에 몸을 던져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다(요코하마에서는 강에 도망친 조선인을 향해 막 돌을 던지거나 배로 추적하여 학살하였다).또한 간또밖에 피신하여도 류언비어와 박해는 일본전국각지에 확대되어있었다.그때문에 일본인행세를 하여 학살을 면하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황의호(黃義浩)는 자기가 조선인이라는것이 발각안되도록 일체 말을 안하는 상태에서 생활하였다.아들인 황부남에 의하면《아버지는 당시 통명(通名)인 마쯔시다(松下)를 쓰고 토목공사업을 하고있었다.진재시에 오야가따(親方)가 <너는 정직하

⁷関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発掘し慰霊する会編『渡韓報告集会』(1983.12.18),『東亜日報』1982.8.31.

고 특별한 센진이다>고 하여 오야가따의 집의 마루바닥에 1 달간 숨으면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그후 1 년간은 롱아자인척하였다⁸⁾.

조선인이라는것을 숨긴다는것은 반대로 말하면 《일본인》이라는것을 증명하여야 했다.

도쿄 쓰끼시마(月島)의 어느 한바(飯場)에 있는 약 20 명의 조선인속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은 자는《매우 일본말이 잘하며》자경단처럼 《머리티를 하여 일본인 행세를 하고있었으므로 살해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남아있다⁹⁾.

또한 어느 조선인녀성은 간또대진재가 일어났을때 《녀학생의 치마를 입고있었으나 남편의 지시로 와후꾸(和服)로 갈아입었다.사탕판매군이나 로동자의 아내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이 옷의 덕택으로 자기 생명을 구할수가 있었다¹⁰⁾》는 증언을 남기고있다.당시 학생보다 로동자가 많이 학살되었지만 비교적 일본어를 쓸줄 알고 일본옷을 준비할수 었었던 계층과 같은 요소도 학살로부터 피신할수 있었는가 어떤가의 갈림길로 되었던바를 짐작할수 있다.

3. 대학살이후의 정신적상처

학살사건의 생존자는 그후 어떻게 살아갔는가.구사일생한 리성구는1926년에 류학을 마쳐 조선에 귀환한후 학교에서 일하였다.앞서 본트라우머적체험이 원인으로 리는 《뒤에서 학생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면 언제나 몸이 경직¹¹⁾》 하였다고 한다.간또대학살을 직접 보거나 죽자살자 피신한 조선인들에게는 그 공포에 찬 체험으로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았을것이라고 보통 생각된다.그러나 그것이 후에 보는바와 같이 일과성의 트라우머로 안되고 장기반

⁸⁾『朝鮮新報』2003.8.2.

⁹⁾『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리종응의증언) .

¹⁰⁾『渡韓報告集会』(라상윤의증언).

¹¹⁾『関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発掘し追悼する会編』『風よ 鳳仙花の歌をはこべ』教育史料出版会,1992.

복성(長期反復性)을 띠게 된 것은 대학살의 충격적인 영향과 함께 일본당국의 학살 《처리》책동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①일본당국에 의한 《조선인폭동》의 《사실》화와 ②자경단으로 학살행위를 책임전가, ③진상규명, 책임추구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을 탄압, ④소아이카이(相愛會)나 각지의 나이센교와카이(內鮮協和會)를 통한 미담집(美談集)발간에 보는 학살사건의 《내선융화(內鮮融和)》에로의 《해소》책동등을 올릴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학살 《처리》책동으로 인하여 《후데이센진(不逞鮮人)》관에 기초한 《조선인폭동》설은 일본인사회속에서 사실처럼 기억되었다. 대학살이후 재일조선인들이 맞선 일본인사회란 당국의 예단(予斷)과 민중의 편견속에서 반복되는 류언비어의 발생으로 인하여 학살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사회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한 속을 살아간 생존자의 그후를 가족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체험자의 트라우마(trauma)

① 문무선

문무선은 간또대진재의 전날밤에 불타는 듯한 저녁노을을 본후 당시의 기억이 한평생 잊혀지지 않았다. 딸인 윤봉설에 의하면 《하늘이 붉으면 래일 어딘가에서 지진이 있어. 그러면 다시 조선인이 죽는다. 조심해야 해》라고 말하여 저녁노을이 질 때마다 떨었다고 한다¹².

지진이 일어나 다시 조선인이 당한다는 생각에 계속 엷매인것은 간또대학살의 충격적인 트라우머적기억이면서 간또대진재이후에도 각지의 재해 등에서 류언과 박해가 되풀이되어 온 실제 상황에 그 유래를 찾을수 있을것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문무선은 자경단에 참수당한 고향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고있으

¹²『統一評論』統一評論社, 2008, 11.

나 그것을 공적으로 이야기한것은 1999년 일본변호사련합회에 인권구제를 제의할 때의 증언마당에서였다.문의 가족은 일본인집주인이 감싸준 덕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이야기는 자꾸 들었지만 고향사람의 희생은 처음 들은 증언이라고 한다.

윤봉설은《아마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당한 두려움을 기억속에 봉인》하여 살아오면서 그것이《풀어져 해방되어 그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그때 당한 충격,그리고 그후 트라우마에 의하여 오래도록 여러가지로 괴로움을 겪어왔다는것을 그때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라고 말하고있다.

정신의학의 복잡성PTSD의 증상에는 협착(狹窄)이 있어 트라우머적기억을 침진(沈殿)시키는것이 지적되어있다¹³.일본정부가 간또대학살의 책임을 회피해온 탓으로 피해자가 만신창이의 고발을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오래도록 가라앉은 트라우머적기억을 분출시켰던것이다.학살책임의 미제(未濟)로 인한 2중, 3중의 폭력과 피해라고 말할수 있다.

②조인승

형이 살해되고 자신도 왼발을 도비구찌(鳶口)로 찢린 조인승은 식민지해방후까지도 악몽에 시달린 한명이다.함께 살던 박분순은 《아버지가 갑자기 한밤중에 잠이 깨여서 란동을 부리거나 저의 뺨을 세게 때리거나 하니 저는 정말 그때에 보통 병인줄 알았다》고 한다.그러나 그것이 몇달간 계속됨으로써 이상하게 느낀 박이 《어떻게 했어.밤중에 이렇게 큰소리를 내거나사람을 때리거나 하니 어떻게...》라고 병원을 권하면 조인승은 《나는 병이 아니라 옛날 진재시에 비참한 일을 당했으니 그것이 종종 꿈에 나와 놀라서 그렇게 된다》고 답하고있다¹⁴.량자는1938년에 결혼을 하고있으니 박의 증언에 따르면 학살사건이후 20년간은 악몽에 시달

¹³즈디스 허먼(Judith Herman)『心的外傷と回復』増補版,みすず書房,1999.

¹⁴『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記録映画 隠された爪痕 採録シナリオ』.

렸던셈이다.또한 조는 도비구찌(鷹口)로 찢린 후 오른 발로 계속 몸을 지탱하다더니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른 발이 심하게 아파졌다.그래서 못자는 밤이 계속 되거나 격통으로 인하여 몇번 구급차로 운반되었으며 그럴 때마다 간또대학살의 나날을 상기하였다¹⁵.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상처가 남았던것이다.

③황의호

아들인 황부남에 의하면 《아버지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완전히 되어 버리자는 생활을 죽을 때까지보냈》다고 하여 《저의 기억속에 있는 아버지는<와후꾸(和服)>의 모습밖에 없다.그러한 가정환경이었으니 어머니의 일본어는 지금 돌이켜보면 조선어 억양이 전혀 없었다.본인이 말하지 않는한 일본인으로 통했다》고 한다.《아버지가 와후꾸모습으로 관(棺)에 들어간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지금 자신이 로년에 이르러 그것이 조선인이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였을수 있다고도 생각한다¹⁶》.황의호는 조선에서 30년간 생활한후에 일본에 건너갔으며 조선인이라는것을 감추고 생활하는것은 간단치 않았다고 짐작되지만 대학살을 계기로 시작한 일본인행세는 그 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다.아들인 황부남도 또한 대학살에 의하여 고향사람5명중 4명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린 시기부터 들으면서 자랐기에 제사를 지낼 때 이야기되는 학살사건의 화제에는귀를 막고싶었다고 한다¹⁷.또한 일본인행세하여온 부모 영향하에서 일본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하여 일상생활속에서 《조선》이라는 말은 무서워서 못썼다.이렇듯 대학살이후 일본인행세를 하게 된 조선인에게 있어서 학살사건의 체험은 자기 분렬을 강요하는 트라우머적삶의 시작이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2)유가족의 고통

유가족의 정신적고통도 또한헤아릴수 없다.

¹⁵『朝日新聞』1984.6.13.

¹⁶『朝鮮新報』2003.8.2.

¹⁷보고자가황부남에게증업수집(2010.8.29).

① 자살

학살사건이후 행방불명된 남편을 고향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자살하게 된 사례도 있다.

리은직(李殷直)은 해방직후 조련에서 문예활동,교과서편찬사업에 립하는속에서 고향-전라북도정읍군정우면오금리¹⁸-에서 있는 일을 기록에 남기고있다¹⁹.

간또대학살 다음해 리은직은 7 살로 신태인공립보통학교 3 학년에 편입하였다.통학길에는 《큰 감나무가 있는 부자집이있어 거기에는 저보다 2, 3 살아래 남애》가 《바깥에서 맥없이 외롭게 서있는것이 많았다》고 한다.그 아이의 아버지는 《도교에 학문을 하러 가서 진재시에 살해되었다는 이야기》이다.가족은 《꼭 돌아온다》고 믿고 기도를 올렸다.그러나 1927 년봄에 《어머니는 병》들어 몸져 누워 《감나무 가지에 새빨강게 익은 감 열매가 달렸을 때》에는 《마을일대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감나무에 목을 매여 죽었던것이다》.달려간 리은직에 의하면 관에 들어간 어머니의 시신앞에서 혼자 남게 된 손자의 손을 잡은 할아버지는 《너는 아버지가 살해되고 어머니도 죽고 외톨이가 되었다.모두 일본인이 나빠,죽인 일본인이 나빠.너는 커서 원쑤를 갓아라라고 울부짖으면서 말하였다》다.리은직자신도 《미칠 지경》이었다고 한다.

② 악몽

학살이후 행방불명된 박덕수(朴德秀)의 가족 김도임(金道任)은 《철이 들었을 때 부터 거듭 어머니한테서 들은 슬픈 삼촌의 이야기로 가슴을 찢리여 언제까지나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고 말하여 매해 9 월 1 일이 다가오면 악몽에 시달린다고 한다.《니혼도(日本刀)를 가진 사무라이(侍)가 저의 목을 찢으려고 합니다.단 하나

¹⁸김정명(金正明)『朝鮮獨立運動III』原書房, 1966.

¹⁹『朝連中央時報』1948.8.27.

밖에 없는 생명이니 죽이지 말라,살려!라고 외치면서 잠이 깨면은몸이 흠뻑 식은 땀을 흘리고있다.또한 캄캄하고 낯설은 장소에 끌려가 발버둥치는 꿈이나 귀신이 사는 큰 절간에 끌려가는꿈. 9 월전후한 3 개월정도는 몸상태가 좋지 않아 괴롭습니다》.김도임은 《소중한 어머니를 슬프게 만든 간또대진재의 잔학한 학살사건을 저는 계속 밟고 원망합니다²⁰⁾》라고 그 아픔을 토로하고있다.간또대학살의 트라우머적기억은 가족내에서 세대를 넘어 전승(傳承)하고있는것이다.

3)집단적트라우머

간또대학살의 영향은 그것을 직접체험한 사람뿐만아니라 조선인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학살의 기억의 전승이라는점에서는 당시 노동자들이 대량학살된것으로하여 한바나 집중거주지 등에서의 노동자에 의한 구두전승(口頭傳承)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속에서 널리 퍼졌고 또한 조선에귀환한 사람들 특히 류학생이 학살사건의 사실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학살의 상기,집중거주나 귀환 등의 트라우머적반응,언행은 간또대진재시의 피학살의 기억의 전승,전달의 결과에 머물지 않는다.학살당시도 류언과 박해는 일본전국각지에 퍼진점,그후 각지의 재해아래서도 류언과 박해가 반복되어 조선인을 두려워하게 하는 《체험》의 축적이 있어 그러한 상황이 보다 악화된 일본패망전후한 시기는 실제로 살해되는 두려움이 커져쓰다.전승된 피학살의 기억이 재일조선인사회속에서 널리 파급되었던것이다.

① 김일면의 《상기》와 《동화》

직접적인 체험자나 유가족이 아닌 김일면(金一勉)의 행동을 보자²¹⁾.

《학대되어온 식민지의 인간인 저에게 <해방>에로의 희망을 확실히 안게 한》 일

²⁰⁾ 関東大震災 70 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編『関東大震災 70 周年記念集会の記録—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日本経済評論社,1994.

²¹⁾ 金一勉『一九四五年の原点』三一書房,1977.

본의 진주만공격으로전국(戰局)이 변화되는속에서 독립의 기대를 크게 하였다.그러나 45년 2월에 도쿄의 거주지근처가 공폭을 당하여《본토결전(本土決戰)》의 긴박감이 높아지면서 어떤 《상정》(想定)이 머리속에서 빠지지않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인들은 일본군민(軍民)의 손으로 돌연히 찢리어 죽는다--는 예측이었다. 조선인인 저에게는 본능적으로 선협적인 정경이 직감해지는것이다.》

그것은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장이 간또에 이동하는 속에서 일제의 붕괴직전에일본군민은 조선독립에 대해 거꾸로 원한을 품고 연합군과 손을 무어 역습해울 조선인을 학살한다,류언비어가 만들어져 대진재시의 대참살이 재현된다는 생각이었다.

사실 일본의 침략전쟁말기에 독립에로의 희망과 피학살의 위구심이 혼재하는속에서 조선에 피신해나간 사람들은 적지 않다.김일면도 또한 여러가지로 피신을 시도하였다.병참기지화되어있는 조선에로의 귀환이 곤난한 속에서 중국에로의 탈출을 시도하였고 학살대상으로 되기 쉬운 조선인집중거주지가 아닌 장소 특히 멀리 산촌에 도망치고숨었다. 그리고 일본인행세,나아가서는 전쟁협력하는 척을 하여 고마신사(高麗神社)에서 일심회의 지하비행장건설에도 참여하려고 결단하고 피신으로서의 동화를 하고 살아남으려고하였던것이다.결국 김일면은 도호꾸에서 8.15를 맞이하여 《그날밤으로부터 온몸에 쌓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괴기한 환상--그것들 망상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즉 <해방민족>과 죽음의 환상으로부터의 해방. 일년에 걸쳐 가슴속에 발효하고 싹튼 망상이 그날밤을 계기로 사라졌다》고 회상하고있다.

② 해방-기쁨과 공포의 혼재

대학살이래 삼촌의 박덕수의 행방이 모르는 김도임은 부모와 함께 야마나시현 도시가와(山梨県道志川)부근의 동포들이 전혀 없는 일본인마을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당시 김은 야밤에 어른들이 소곤소곤 이야기하고있던 내용을 들어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조선에서 철수하여온 일본병사들이 시모노세끼항(下関港)에서 조선인귀환자들을 살해하고있다는 소문이 있다.귀환하기 전에 먼저 조선인들이 집중거주하고있는곳에 가는것이 안전하다》.그후 김의 가족은 가나가와현 가와사끼(神奈川県川崎)에

가기로 하였다²².일본인귀환자에 의한 조선인살해의 소문으로부터 즉시 귀환이 아니라 조선인집중거주지에로의 이동을 당면하게 택하였던것이다.이는 간또대학살의유가족으로서 보다 절박한 문제였다.더우기 실제로 교또에서는 45년 11월 11일에 6명의 조선인가족이 조선에서 철수하여온 복원군인(復員軍人)에게 살해당하고있다²³.

체험자뿐만아니였다.조선인들은 피학살의 기억이 상기되면서 조선에로의 귀환, 집중거주와 조선인단체에로의 집결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

20수년전의 간또대진재시에는 대학살로부터 피신하기 위하여 간또에서 탈출하는 조선인이 속출하여 도쿄의 조선인인구는 대진재후 2달간으로 진재직전의 반수 이하로 격감하였고²⁴ 시모노세끼에는 간사이(關西)지방으로부터도 일본인의 적대감정때문에 귀향할 사람들이 집결하였다²⁵.이처럼 피신으로서의 귀환은 대진재직후에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해방전후한 시기에 보다 큰 움직임으로서 나타나게 된것이다.조련제3차대회의 정세보고에서는 해방직후 서둘고 귀환하는 동포들의 상황을 《기쁨과 공포심과 해방된 조국의 그리운 면모를하루빨리볼려는울렁거리는 가슴으로 시모노세끼에²⁶》 달려갔다고 보고하고있다.

4. 맺음

본 보고에서는 주로 생존자와 유가족을 레로 간또대학살사건의 체험과 그후 동향과의 련관을 살펴보았다.대학살로 인하여 당한 정신적인 피해로서의 공포심은 피신이라는 여러가지 신체적행동으로 나타났고 생존자나 유가족,그리고 재일조선인사회의 정신적상처로 남게 되었다.식민지주의의 폭력은 신체적인 피해뿐만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였던것이다.

끝으로 본 보고는 체계1에서 본것처럼 현대일본의 력사학에서 2항대립적으로 파악되는 지배-저항의 령역을 오히려 피식민자가 당한 폭력과 그 정신적피해라는 시점으로부터 포착한것이다.그것을 통하여 보여온 재일조선인사서술에서의 2가지

²²보고자가김도임에게증업수입(2014.8.10)

²³『朝鮮人生活權擁護委員會ニュース』1947.4.5.

²⁴『時事新報』1924.8.23.

²⁵『東亞日報』1923.9.14.

²⁶『在日本朝鮮人連盟第三回全体大会議事録』朴慶植編『朝鮮問題資料叢書』9, アジア問題研究所, 1990.

가능성을 지적한다면 첫째로 학살된 조선인측을 《아래서부터》의 시점, 즉 민중사적으로 그리는 것이며 그것은 학살사건의 체험으로부터 재일조선인들의 식민지경험을 재고찰하는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자신들의 삶을 둘러싼 민중들의 과제의식이 바로 민족운동에 이어졌다는것, 즉 재일조선인의 생활과 운동의 련결을 그리는 가능성이다.전자는 증언수집과 희생자조사가 진척되어야 하며 후자는 해방전후한 시기에 일본에 산 조선인속에 있는 피학살의 두려움이 조직에로의 직결,그리고 보고에서는 취급못했으나 학살책임추구운동에 이어졌다는점들이 실마리로 될것이다.

본 보고가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서 간또대학살이란 어떤 경험이었는가라는 테마를 넘어 간또대학살을 재일조선인사속에 자리매김하는 역사학적시도로 되었으면 한다.

조선인강제동원문제의 역사적 의미

안자코 유카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1 . 들어가며

본고는 최근에 이른바 ‘징용공’재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강제동원문제’의 구조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강제동원’은 일본에서는 오래 동안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왔다.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는 정의가 애매한 채로 사용되었기에,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양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¹. 이에 대신하는 용어나 용법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강제연행’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동원을 상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로 ‘강제동원’이 쓰이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도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강제연행’과 ‘강제동원’ 모두 그 문제를 다루는 범위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조선인강제동원’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원래 강제동원피해자들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인이나 연합군포로 등 다른 외국인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 보고에서는 일단 조선인으로 한정하겠다. 용어 정의는 사람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강제동원’의 범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여기서는 가장 넓은 정의로써 ‘전시기에 조선인에게 실시된 노동력동원 및 병력동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력 동원 및 병력동원’은 다양한 ‘전시동원피해’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인적 동원 외에도 쌀이나 면포, 귀금속의 공출과 같은 물자동원, 강제저축이나 애국국채 등의 자금동원도 원래는 ‘전시동원피해’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인적동원에 한정하면서, 강제동원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다.

¹金英達, 『金英達著作集2 -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店, 2013년.

2 . 조선인 강제동원의 구조

(1) 조선인 강제동원의 분류

우선 조선인 강제동원의 전체 분류를 【자료1】로 정리했다.이 분류를 보면 강제동원에 들어가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 가를 쉽게 알 수 있다.이 분류는 히다(飛田) 외 논문²에 있는 분류에 발표자가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것이다.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강제동원으로 봐야할 것인가는 분류를 보면 분명하다.

분류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여기서는 기준을 ‘기간’, ‘지역’, ‘목적’,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눴다.우선 ‘기간’은 동원된 기간이 임시적인지,상시적인지로 나눴다.대부분의노동력동원이 계약 기간이 있는데(계약이 지켰는지 안지켰는지는 막론하고),그 길이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또한 지역에 의한 분류는,어디에서부터 동원되었는가,어디로 동원되었는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볼 필요가 있다.그것을 기준으로 조선내,조선에서 조선 밖으로,일본에서 일본 안밖으로,라는 3 가지로 나뉜다.

다음의 ‘목적에 의한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크게 군요원(軍要員)과 민간요원(民間要因)으로 나뉜다.군요원은 병사 또는 ‘군속’(군과 계약한 노동자)로써 동원된 사람들이다.군요원도 민간요원도 둘 다 조선총독부가 그 행정처리를 맡았다.행정처리를 맡았다는 것은,총독부가 행정법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행정기관을 통해서 동원 수속을 했다는 것이며,이것은 일본의 국가책임을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다.

동원방법에 의한 분류는 동원방법의 다양성을 알 수 있는 분류이다.이 분류 중 노동력동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다음으로 이 분류 속에서강제동원의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는 관점에서 중요한 점 두가지를 정리하겠다.

하나는 노동력동원과 병력동원의 구별이다.이 두 가지는 단순히 동원을 맡은 주체가 군인가,총독부 또는 민간회사인가 하는 차이 뿐만 아니라,동원의 근거가 되는 계획이나 법률이 전혀 달라진다.노동력동원은 국가총동원계획,그 중에서도 노무동원계획을 근거로 삼았다.이 노무동원계획은 주로 생산력확충계획의

²飛田雄一・金英達・高柳俊男・外村大,「朝鮮人戰時動員に関する基礎研究」,『青丘學術論文』4,1994년.

대상이된 물자 생산을 맡은 산업으로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총동원’이라고 하면,군(軍),관(官), 민(民),모든 부문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실제로는 아니다.‘총동원’이란 기본적으로 군사부문의 동원을 제외한,나머지 모든 부문에서의 동원을 가리킨다.군으로의 동원은 ‘군수동원계획’이라고 하며, 총동원계획이 1930년대에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세워졌었다. 조선에서도 조선군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조선군을 위한 동원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었다.

둘째로,일본으로의 노동력동원과 조선 내에서의 노동력동원의 차이이다.지금까지 ‘강제연행’이라고 하면 흔히 조선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그런데,조선 내에서도 일본으로의 동원 이상으로 대규모 동원이 실시되었다.둘 다 노무동원계획에 근거해서 실시된 것이다.

‘노무동원계획’³ 안에서는 몇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기본 요강은 일본 및 만주의 군수부문으로 노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중심 주제인데,그 외에도 조선,대만 등 각 식민지 내에서 실시되는노동력의 동원계획도 들어가 있다.예를 들어 조선에서의 동원계획을 보면 【자료2】가 된다.

【자료2】는 1940년도 노무동원실시계획 강령이다.오른쪽 표 ‘일반노무자 신규수요 수’는,일본제국 전체의 분야별 노동력 동원계획이다.왼쪽에 있는 ‘내지에서의 일반 노무자 급원 별 공급 목표 수’는,오른 쪽 표에서 계획된 노동자 수를 어디서 몇 명씩 동원하는가에 관한 계획표이다.이 표 속을 보면, ‘농업 이외의 산업으로의 공급원으로써 ‘이주조선인 노무자 8만 8천명’이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즉 조선에서 조선인 노동자 8만 8천명을 일본으로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선에서부터 일본으로의 노동자 동원 계획의 변천을 일람표로 만든 것이 【자료3】이다.【자료3】을 보면, ‘이입조선인 노동자수’의 증가율 및 일본으로 동원될 노동자수‘안에서 조선인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추가했다. 1941년을 제외하고 그 비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조선의 노동자 수요수,즉 조선 안에서 필요한 노동자의 분야별 인원 수 계획이 있는데,그것이 【자료4】이다.이 중 ‘내지(일본)이주수’가 8만

³조선의 총동원계획에 대해서는 안자코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정책’,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년, 또는 庵途由香, 「朝鮮における總動員体制の構造」,和田春樹외 편, 『岩波講座東アジア近現代通史』 제6권,岩波書店,2011년을 참조.

8천8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2】에서 나온 일본으로 보낼 공급원 수와 같은 숫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료4】는 1940년의 자료이지만, 1941년과 1943년의 노무동원계획 중의 계획 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 【자료5】이다.

조선에서도 당시 군수 자원 획득을 위해 지하 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중화학공업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다. 【자료5】을 보면, 조선 전체 노동력 수요 계획 수 중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자 수는 전체의 24%부터 28%이다. 일본으로 동원될 조선인 노동자 수 보다는 조선 내 산업으로 동원될 조선인이 2 배 이상 있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다. 10년전까지 만해도 조선 내의 노동력동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나, 일본으로의 동원 이상으로 조선 내 강제동원이 이 만큼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조선총독부에 의한 동원방법의 중층(重層)적 실시

그러면 조선인 노동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동원되었는가를 보자. 대표적인 동원 방법으로서 ‘모집’, ‘관알선’, ‘징용’이라는 방법들이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방법으로 동원됐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자연 전입 및 연고 고용, ②직업소개소에 의한 소개, ③‘조선노동자모집요강’에 의한 모집(1939년 9월~), ④조선직업소개령에 의한 모집(1940년 1월~), ⑤‘조선총독부노동알선요강’에 의한 관알선(1940년~), ⑥근로보국대(1941년 12월~), ⑦국민징용령(1944년 2월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 ⑧국민근로동원령(1945년 4월, 이것으로 모든 노동법령을 통합)

동원계획에 있는 ‘노동자 공급원’에 포함되는 노동자 수에는 자연 전입(스스로 고용된 사람들)이나 직업소개소를 통한 동원도 들어간다. 말하자면, 원래 ‘자연 전입’ 형식 고용으로는 도저히 계획 수 만큼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독부와 같은 행정체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모집’ 이하의 동원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②이후가 된다. ⑤는 ‘조선총독부노동알선요강’에 의한 관알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것이 지금까지 흔히 ‘관알선’으로 알려진 방식이다. 총독부에 의한 ‘관알선’ 방식 자체는 이 보다 전인 1937년 4월부터 주로 토목건축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와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된 요강을 내세웠다. 즉 1940년에 들어 이 ‘요강’이 만들어진 다음에 노무동원계획에 근거한 본격적인 ‘관알선’이 시작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모집’방식은 1939년부터, ‘관알선’방식은 1942년부터, ‘징용’방식은 1944년부터라고 흔히 설명하지만, ‘징용’방식이 시작했다고 전에 있던 ‘모집’이나 ‘관알선’ 방식이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모집’도 ‘관알선’도 1945년까지 실시됐었다. 다양한 동원 법령에 의해 실시했던 복잡한 동원방법을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 통일한 것이 1945년 4월부터 시행된 ‘국민근로동원령’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양한 방식이 같은 시기에 같이 실시되었다는 점, 특히 조선 내 산업으로의 동원은 조선의 지방행정, 즉 도나 군의 행정 이동원 방식을 결정했었다⁴.

(3)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보는 세가지의 시각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실시된 강제동원을 보는 세 가지 시각을 히다 기타 논문에서 지적한 적이 있다. 첫째, 이 문제가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역사의 일부라는 점, 둘째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역사의 일부라는 점, 셋째가 재일조선인 역사의 일부라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강제연행’이 재일조선인의 역사로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주로 일본으로 동원된 것을 중심으로 보고 왔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둘째 시각도 중요하다.

첫째 시각은 강제동원이 조선뿐만 아니라 대만 등의 식민지나 중국, 동남아시아와 같은 점령지에서도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들을 일본이 정책적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에 가담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다. 또한 본 보고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둘째 시각이다. 다음으로 이 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4)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조선은 일본제국 전체 속에서 영토의 32%, 인구의 22%를 차지했었다. 그 조선에서부터 동원된 노동력이나 병력, 또는 쌀, 면포와 같은 물품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한 자원으로써 중요한 ‘군사품’들이었다. 조선에서는 인구의 10%가 되는 사람들이 조선 외로 동원되었으며, 그 몇 배가 되는 조선인들이 조선내에서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조선에서 구축된 조선총동원체제였으며,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였다.

⁴庵邊由香, 2010, “朝鮮人強制動員における勞務(國民)動員計畫と地方行政”, 『季刊戦争責任研究』 70.

특히 일본이 조선인을 이렇게 대규모 동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910년 ‘한국병합’에 의해 조선인에게 ‘일본국민’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달리, 일본국적을 빠질 수가 없었다. 조선의 식민지화 자체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이라는 전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러일전쟁에서는 대한제국 정부의 중립선언을 무시해서 일본이 조선으로 파병했다. 이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었다. 일본은 이들 전쟁을 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자체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 것이다.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은 조선의 식민지 지배와도 깊이 관련이 있었다. 조선에서도 총동원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그 만큼 큰 규모의 조선인 노동력 동원이 가능했던 것은, 식민지 정책이 그 토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 아래서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동원의 폭력성(강제연행 성), ② 감시와 압박 아래서의 노동(강제노동 성), ③ 황국신민화의 강요, 차별적 대우, 학대(민적 차별성). 강제동원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그 동원과정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감시와 압박 아래서 과도한 노동이 강요되었으며, 차별적 대우나 학대를 받아온 것도 ‘강제성’에 들어간다.

이러한 노동 현장에서의 과도한 노동이나 비 인간적인 대우, 민족차별은 조선 내 보다는 조선인이 소수자로 있었던 일본 안에서 더 심했다. 그것은 전황이 공습이나 소개 저림조선보다 일본이 더 전황이 심한 압박된 상황였다는 것도 배경이 된다. 조선 안의 광산이나 공장으로 동원된 조선인들도 거기서 도망한 경우가 많았다. 한때는 도망율이 4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⁵. 한편으로, 이러한 노동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총독부가 조선인 노동자들이 좀 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 경우도 있었다⁶.

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은 일본 패전 후에도 계속되었다.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조선으로 귀환 시켰을 때도 그랬다.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중 80% 가까이가 1945년 12월까지 귀환했는데, 이것은 집단으로 일본으로 동원되고 거주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패전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는 치안적인 이유로, 일본정부가 그들을 우선적으로 송환할

⁵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1938-1945)』, 신서원, 2001년.

⁶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연세국학총서, 2006년.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⁷.

3 . 전후 미해결,미청산 문제로서의 강제동원

(1)일본정부의 대응

이러한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가 전후 60년 이상 방치된 것이 현실이다.지난 2018년 10월에 한국의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현 신일철)에 대해 피해자 원고들에게 1억원 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까지, 아주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에 원인이 있다.

일본정부는 조선을1910년부터는 정식으로 일본 영토로 간주하며,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동원됐기 때문에,다른 일본인과 같이 전쟁동원 정책에 응하는 의무를 감수해야 했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1952년에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박탈했는데도‘현재는 일본 국적을 보유하지 않다’는 이유로,일본인이 받고 있는 군인은급이나 원호정책에서배제해 온 것이다.

또한 강제동원이나 식민지 지배에 관한 책임이나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 중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오오타 오사무의 상세한 분석⁸에 의하면,한일협정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이나 식민지 지배 책임은 결코‘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지탱해 온 것이 일본사람들의 이 문제에 대한 무관심,‘무이해(無理解)’가 아닌가 생각한다.이것이야 말로 이 문제가 오래 동안 방치된 토양을 만들었던 것이다.일본정부는 패전 직후,동원에 관련된 중요 자료를 연합국의 전법 재판을 두려워해서 전국의 각 지방행정체에 대해 소각하도록명령을 내렸다.이 때문에 현재도 이 시기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남아 있지 않았으며,불명한 부분도 꽤나 있다.

그러나,강제동원에 의한 피해는 강제노동에 의한 사망,학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안된 것은 물론남은 문제들은 너무나 많다.일본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 발굴과 송환문제는 최근에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이다.기타 미불금

⁷강만길,안자코 유카,「해방후 ‘강제동원’ 노동자의 귀환정책과 실태」,『아시아연구』제 45권 2호(통권 108호), 2002년.

⁸太田修,『新装新版 日韓交渉 請求権問題の研究』,クレイン,2015년.

문제,기업의 책임 문제,피폭자문제 등,많은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다.

(2)다양한 운동,활동의 전개

한편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일찍부터 알고 진상규명활동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있다.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이나 일부 일본 시민들이다. 1965년에 박경식이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을 출판한 이후,여러가지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⁹.유골이나 명부 발굴도 그 중의 하나이다.일본 전국의 이런 활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만들어졌다.이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연구자들보다 시민운동가들이 훨씬 큰 성과를 남기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들의 예를 들자면,재일조선인이나 일본인 활동가에 의한 조사 및 연구,각지의 진상규명 활동의 전개,재판투쟁,피해자 지원활동,한국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한 조사활동,한국의 지원특별법 제정,한일시민단체의 네트워크 만들기,ILO의 조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ILO29호(강제노동의 금지)조약 위반 규정 등이며,활동은 국제적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판투쟁이다.중국인강제연행 관련 재판도 포함하면,현재까지 80을 넘는 재판이 일본에서 제기되었다.이들 재판 중에서 원고(피해자)가 전면 승소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2000년 이후로는 피해 사실이나 이들에 대한 일본정부 및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도 나오기 시작했다.일본에서 위낙 패소하기에,한국에서 새로 제기한 재판 투쟁의 성과가 바로 2018년 10월의 신일철주금회사를 피고로 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다¹⁰.원고(피해자)의 주장을 전면으로 승인한 이 대법원 판결은,1945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피해자가 이긴 ‘전후보상운동’의 크나 큰 성과이기도 한다.현재 한일 정부간에서 이 판결과 판결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크게 대립하는 상황이다.그런데,이 판결이 재판투쟁뿐만 아니라,오래된 전후보상운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만한

⁹1995년에 출판된 김민영의 『일제의조선인노동력수탈연구』(한울아카데미)가권말에 실은 강제동원 관련 논저 일람을 보면,당시만해도 일본에서 500 개를 넘는 책이나 글들이 공간되었었다.당시 한국에서 공간된 논저는 60개 내외였다.

¹⁰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川上詩朗,「韓国徴用工裁判の経緯、判決の概要と今後の取り組みについて」,『法と民主主義』No.537,2019년 4월; 張完翼(野木香里 역),「強制動員に関する韓国大法院判決の経過と現状」,『戦争責任研究』第85号,2015년, 등으로 참조.

‘진진’인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4 . 맺은 말

강제동원문제는 1차적으로는 일본의 민주화वाद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의 침략이나 지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청산해 가는가를 일본인들이 우선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제로 한일 시민들이 같이 활동해온 시민운동은 한일간에서 더 깊은 유대를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패전 후 70년이 넘는 상황에서 세대 교체가 진행하면서 살아남은 피해자가 없어지는 현재, 문제의 해결 방식도 전과는 다르게 생각할 부분도 생기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는 가족이나 친족 등 속에 일제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흔히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일제시기를 모르는 세대’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경험자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이 일제시기를 경험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알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는 이제 지나갈 것이고, 앞으로 많아지는 것은 일제시기에 대해 간접적이더라도 들을 기회가 없는 세대들, 즉 미디어나 글을 통해서만 강제동원을 알 수 있는 세대들이다. 한국에서도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친근감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강제동원을 비롯해서 전쟁시기 조선에서 실시된 동원 정책에 관한 연구 성과가 아직도 미진하다는 점이다. 노동력 동원 만에도, 동원 방법이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 번 대법원 재판에서 이긴 피해자들도, 당시 고용된 방법은 광고를 보고 응모한 말하자면 ‘자연 전입’된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조선 내 동원체제만해도 아직까지 연구가 안된 주제가 너무나 많은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들도 몇 가지 연구성과를 발표했으나, 간행 보고서의 대부분은 증언집이나 자료집이었다. 앞으로 다음 세대의 연구자 육성이 필요하다.

【자료 1】 조선인강제동원의 분류 (飛田 · 金 · 高柳 · 外村논문의 분류를 일부가필한 것)

동원기간 (임시적이었는가 상시적이었는가)

- (1)임시요원 (일시적, 임시적 동원) : 거주지역 내 근로봉사 및 1년을 넘지 않는 학도동원, 근로보국대, 여자정신대 등
- (2)상시요원 (1년이상 구속되는 동원) : 국가총동원계획 상의 계획적 인원이동 · 인원배치의 일환

동원영역 (어디에서 어디로 동원되었는가)

- (1)조선내 동원 (도내 동원 · 도외 동원)
- (2)조선에서 조선 밖으로 동원 (일본, 사할린, 지시마열도, 태평양제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
- (3)일본에 이미 와 있는 조선인 동원 (일본 안, 일본 밖)

동원목적 (무슨 목적으로 동원되었는가)

- (1)군요원 : ①병사
 - a. 처음부터 조선인 · 대만인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육군사관학교, 소년병 등)
 - b. 징병제실시를 위한 과도적 제도 (육해군특별지원병, 학도지원병)
 - c. 징병
 - ② 준병사(군속의 병력이용) a. 해군설영대 b.포로감시원
 - ③ 군속(군과 고용관계이 있을 경우)
 - ④ 기타 a.종군간호부 b.군대위안부 c.통역 d.기타
- (2)민간요원
 - ①할당모집 · 관알선에 의한 집단이입노동자
 - ②징용(신규징용 · 현역징용)에 의한 노동자
 - ③근로보국대, 여자정신대 등

동원방법 (어떤 방법으로 동원되었는가)

- (1)군요원 ①응모 ②지원 ③징병 ④징용
- (2)민간요원 ①자유응모(연고 등) ②할당모집 ③관알선 ④지원 ⑤징용 ⑥국민근로동원령
- (3)법적 강제력이 있는 경우(징병, 징용)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경우(그밖)

【자료4】 1940년도 노무동원실시 계획 강령 (조선 내 동원)

1940년도 노무동원실시계획 강령(안)

조선에서의 일반 노무자 급원 별 공급 목표수				조선에서의 일반 노무자 신규 수요 수			
군수산업	생화학업	부대산업	필수품산업	운수통신업	국토토목건축업	소계	합계
남	녀	합	남	녀	합	남	녀
7800	400	8200	10320	4500	10770	16400	1700
9000	3300	12300	13500	500	14000	5700	700
15560	1110	16670	61700	6120	12290	10000	10000
20000	1000	30000	-	-	-	-	-
33730	8230	41960	20000	1000	30000	9802	1293
			8596	1454	10050	33730	8230
			40304	3970	44274		

【자료 5】 조선에서의 신규일반노동자 수요목표수 (단위 : 명)

	1941년도			비율	1943년도			비율
	남	녀	합		남	녀	합	
군수산업	7800	400	8200	2.0%	5766	197	5963	1.3%
생화학업	10320	4500	10770	2.5%	45226	1926	47152	1.0%
부대산업	16400	1700	18100	4.3%	8549	1116	9665	2.2%
필수품산업	9000	3300	12300	2.9%	2422	265	2687	0.6%
운수통신업	13500	500	14000	3.3%	24441	857	25298	5.7%
국토토목건축업	5700	700	6400	1.5%	5289	-	5289	1.2%
소계	15560	1110	16670		17195	9417	18136	
감모보충요원수	61700	6120	12290	2.9%	72690	1253	85229	1.9%
내지이입수	10000	-	10000	2.3%	12500	-	12500	2.8%
가라후토이입수	-	-	-	0.0%	-	-	-	0.0%
만주개척민	20000	1000	30000	7.1%	15000	1500	30000	6.8%
하급사무직원	-	-	-	-	9802	1293	11095	2.5%
공무요원	-	-	-	-	8596	1454	10050	2.3%
합계	33730	8230	41960		40304	3970	44274	

출전 : 노무(국민)동원계획 각년도판으로 작성

【참고문헌】

★조선인 전시동원에 관한 연구사 정리는, 「第一章 朝鮮人戰時労働動員史研究の歩み」(山田昭次외, 『朝鮮人戰時労働動員』)이나 竹内康人, 「日本での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現状と課題」 및 김광열 「韓国における戰時期朝鮮人強制動員の研究動向と課題」(둘 다 「第6回強制動員真相究明全国研究集会」 보고, 2013년 3월)이 자세히 정리했다.

(연구논저)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来社, 1965년(복곡판 1996년).

飛田雄一·金英達·高柳俊男·外村大, 「朝鮮人戰時動員に関する基礎研究」, 『青丘學術論文』 4, 1994년.

金英達, 『金英達著作集 2 -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店, 2013년.

金廣烈, 「韓国における戰時期朝鮮人強制動員の研究動向と課題」, 「第6回強制動員真相究明全国研究集会」 보고, 2013년 3월.

竹内康人 편저, 「戰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の現状と課題」, 『戰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 - 連行先一覽·全国地図·死亡者名簿 -』,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2007년.

竹内康人, 「日本での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現状と課題」, 「第6回強制動員真相究明全国研究集会」 보고, 2013년 3월.

庵途由香, 「朝鮮人強制動員における労務(国民)動員計画と地方行政」, 『季刊戦争責任研究』 70, 2010년.

外村大, 『朝鮮人強制連行』(岩波新書1358), 岩波書店, 2012년.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朝鮮人戰時労働動員』, 岩波書店, 2005년.

김대상, 『일제하강제인력수탈사』, 정음사, 1973년.

권병탁, 『계라마열도 - 일제말징용기-』, 영남대출판부, 1981년.

김민영, 『일제의조선인노동력수탈연구』, 한울아카데미, 1995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2016년.

(기초자료집)

朴慶植 편, 『朝鮮問題資料叢書』 I·II, 三一書房, 1982년.

戰後補償問題研究会 편, 『戰後補償問題資料集』 1~8집, 戰後補償問題研究会, 1990~1993년.

林えいだい 감수/ 책임편집, 『戰時外国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I~IV, 1991년.

長澤秀 편/해설, 『戰時下朝鮮人中国人連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 I·II, 綠陰書房, 1992.

樋口雄一 편, 『戰時下朝鮮人労務動員基礎資料集』 I~V, 綠陰書房, 2000년.

庵途由香 감수/해설, 『朝鮮労務』(復刻版), 綠陰書房, 2001년.

竹内康人 편저, 『戰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 - 連行先一覽·全国地図·死亡者名簿』,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2007년.

竹内康人 편저, 『戰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 2 - 名簿·未払い金·動員数·遺骨·過去清算』,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2012년.

9.18사변후 일제의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 책동의 반동성

위광남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근대사실장 박사 부교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의 토지를 대량적으로 약탈하기 위한 악명높은 <선농이만정책>에 따라 <집단개척민>이라는 명목으로 수만명의 조선농민들을 중국 동북지방에 강제로 이주시키였다.》(《김일성전집》 제 100 권 114 제지)

지난날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정책에 따라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 책동도 감행하였다.

9.18 사변후 일제가 중국 동북지방으로 조선사람들을 강제이주시키 위하여 감행한 《이민》 책동은 하나의 범죄적인 조선인강제징발책동이였다고 해야할것이다.

이 시기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저들의 통치권을 확보한 일제는 이 지역에 대한 침략정책수행과 경제적약탈에서 대대적인 조선인이주와 그 관리를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고 그것을 정책화하였으며 《선농이만》이라는 간판밑에 조선농민들을 중국 동북지방으로 내기 위한 강제 《이민》 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제가 감행한 중국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 책동은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반동성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놓은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9. 18 사변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파썬폭압통치속에서감행된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 책동의 반동성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일제의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 책동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조선사람들을 중국 동북지방으로 대량적으로 이주시켜 저들의

식민지통치와 대륙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경제적지반을 닦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안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부터 감행된것이라는데 있다.

그 근거는 우선 일제가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조선인강제 《이민》을 실현함으로써 저들의 식민지통치와 대륙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경제적지반을 닦으려는 목적으로부터 실시된것이였다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제가 중국 동북지방에로 조선인실업농민들을 강제이주시키려고 한것은 만주일대의 미개간지를 조선농민들을 시켜 개간하게 하고 그것을 저들의 소유로 만들어 만주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대륙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경제적지반을 닦으려는데 있었다.

1. 일제는 9.18 사변을 계기로 만주를 강점한후 《만주는 우리 국방의 제 1 선이며 나라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할 생명선》¹이라고 떠벌이며 중국 동북지방을 저들의 공고한 식민지로, 조선과 함께 대륙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튼튼한 후방기지로 만들려고 꾀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9.18 사변이후 저들이 강점한 중국 동북지방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로타고앉아 대륙침략의 공고한 식민지로 만들며 조선과 함께 침략전쟁수행의 튼튼한 후방기지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이였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선농이만》이라는 간판을 내들고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대대적인 조선인이주를 제창하게 되였다.

일제는 만주에 대한 무력침공을 도발한후 일본인들의 만주이주를 선전하며 집단적으로 이민을 조직하였는데 이 일본이주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귀국하였다.

그 리유에 대하여 일제는 만몽지역이 기후가 조화롭지 못하고 토지풍토가 일본인들에게는 부적당하다는것, 일본인들이 농경 또는 로동에 대한 생활력이 낮아 로동력이 풍부한 중국인들과 경쟁할수 없다는것, 또 토비흉적의 횡행 등의 구실을 붙이면서 이 지역에 대한 이민실현을 보기에선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시일로 적지않게 걸릴것이라고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일본인이주의 실패를 인정하였다.²

¹ 《대만조선이민의 건실성》 일문 조선공론사 1933년, 84 페이지

²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조선연구사 1933년 16 페이지

그러나 일제는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저들의 침략야욕으로부터 그에 대한 출보를 모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에 일본인들을 대량이주시키는것과 함께 중국 동북지방에 조선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켜 이 지역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통치체계를 구축하고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자는것이였다.

일제는 일본인들이 중국동북지방에서의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의 생활, 식량의 조악(조잡하고 나쁜것), 환경에 의한 심리의 변화, 풍토의 격변, 이주지의 설비불완전, 고생스럽고 부족한 일상생활 등등)》³의 조건에 견디기 힘들므로 일본이민의 장래라는것은 비관적이라고 하면서 《내지인 (일본인-인용자)을 무리하게 보내는것 보다는 가까운곳에 ...얼마든지 있는 조선인이민을 대대적으로 보내는것은 가장 합당한 특책》⁴ 이라고 떠벌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을 렬등시한데로부터 일본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가기를 꺼려하는 만주에 조선농민들을 강제적으로 내몰아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민족적모독이였다.

일제가 일본인들이 가기 저어하는 중국 동북지방에 조선농민들을 내몰려고 한것은 그들로 하여금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고 저들의 경제략탈의 토대를 닦게 함으로써 장차 침략전쟁수행의 물질적기초를 마련하는에도 음흉한 목적을 두고있었다.

당시 일제는 만주에로의 《이민사업은 단지...중국인 및 일선인(일본인과 조선인-인용자)이 잡거하는것이 아니라 적어도 4 000-5 000 k m²에 달하는 대집단지를 만들고 여기에 일선인농민을 리상적으로 배치하고 만주국안에 순수하고 광대한 신일본을 출현시키기》⁵ 위한것이라고 로골적으로 떠벌였다.

일제는 중국 동북지방의 개간되지 않은 광대한 토지를 략탈하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은 그 수단으로 들이밀려고 하였으며 조선 《이민》들의 힘으로 《개척》한 토지를 조선인 《보호》라는 식민지통치수법을 리용하여 저들의 수중에 장악하여 식민지통치의 중요한 경제적지반을 닦으려고 하였다.

3 《대만조선이민의 건실성》 일문 조선공론사 1933 년, 63 페이지

4 《대만조선이민의 건실성》 일문 조선공론사 1933 년, 75~76 페이지

5 《만주 및 조선이민실행안 의견개요》 일문 1932 년 3 페이지

이와 함께 조선농민들을 착취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일제침략군의 군량미와 군수원료로 수탈리용하며 나아가서 임이의 순간에 침략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손쉽게 징발하려고 하였다.

결국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 강제 《이민》책동은 만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대륙침략전쟁수행의 경제적지반을 노린 반동적인 것이었다.

그 근거는 들쭉로 조선인강제 《이민》책동이 일제가 중국 동북지방에조선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조선인실업자들의 일본이주를 막고 저들의 정치경제적안정을 이루어보려는 데로부터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조선농촌에서의 일제의 경계적락탈은 계급분화를 촉진시켰으며 수많은 조선농업실업자를 산생시켰다.

이에 대하여 일제출판물까지도 《<동척>, <식은>(식산은행) 등 금융자본의 토지점병은 급속도로 전진하여 농촌의 중간층은 사실상 몰락의 비운》에 빠져있었고 《지주대 소작인만이 점차 증가하여 농촌의 계급적대립은 날을 따라 더욱더 첨예화》⁶되고있었다고 평하였다.

여기서 지주가 증가되었다는것은 조선인지주의 증가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일본인 부재지주 또는 토착지주가 날로 증가하는 대신 조선인지주는 반대로 자취를 감추고있었다는것을 말한다.⁷

1929 년 현재 지주, 자작농겸 소작농 및 소작농의 증감형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볼수 있다.⁸

년도	농가호수	지주(명)	자작농(명)	자작겸 소작농(명)	소작농(명)
1916 년	2,641,154	66,391	530,195	1,073,360	971,208
1920 년	2,720,819	90,930	529,177	1,071,780	1,082,842
1924 년	2,704,272	102,183	525,689	934,208	1,143,192
1928 년	2,799,188	104,601	510,983	894,381	1,255,954

즉 1916 년에 지주는 농가호수 매 100 호에 대하여 2. 5 호였지만 1928 년에 이르러서는 3.7 호로 증가하였으며 작농은 20. 1 호였던것이 18. 3 호로 ,자작겸

⁶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 년 9 페이지

⁷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 년 9 페이지

소작농은 40.6호로부터 32.0호로 감소되고 소작농만은 36.8호로부터 44.9호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정은 조선농촌에서 매해 30 만명을 헤아리는 농업실업자를 산생시키는 근원으로 되었다.

실업자로 된 조선사람들은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 일본으로 대대적으로 이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제출판물까지도 《일본에 이주한 조선인의 실지수는 약 70여만이며 그중 약 10%의 류학생 혹은 소상인, 관공리 등의 중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근육로동자이다.》⁹라고 분석하였다.

사실 1917년에 일본에 건너간 조선사람의 수는 1만 4012명이었다면 1920년에는 2만 7492명, 1923년에는 9만 7395명, 1927년에는 13만 8061명에 달하였다.¹⁰

이것은 1917년 이후 근 10년간에 일본에 건너간 실업농민이 약 10배로증가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중 조선인실업농민의 대부분은 《도쿄, 오사카의 2대도시를 중심으로하는 지대에 가장 많이》¹¹거처하여 고통스럽게 생활하고있었다.

당시 일제는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금후 어떠한 특효있는 구제책이라도 강구되지 않는 한 이 경향은 더욱더 심각화되어 갈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에서는 250만의 실업자를 내고있으며 여기에 근 20%에 달하는 조선인실업자들도 증가하여 결국 물에 빠진자가 들물진 형국이》¹²될것이라고 실토하였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로동자들을 조선으로 되돌려보내거나 일본에로의 도항을 방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가 실시한 이주방지구단은 도항증명서의 교부규정공포와 함께 관부련락선을 리용하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감시통제였다.

일제는 조선농민들을 강제적으로 귀환시키려고 하였으나 당시 일본인들도

⁸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년 9페이지

⁹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년 12페이지

¹⁰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년 12페이지

¹¹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년 12페이지

¹²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년 13페이지

일본에 이주한 조선농민들치고 한사람도 귀국하여 농업에 종사할수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별로 효과가 없을것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에로의 조선인이주와 실업자의 증대는 조선농촌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것으로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지속되는 한 달리될수 없는것이였다.

당시 이러한 형편에 대하여 일본인들까지도 《조선인노동자문제와 조선에서의 농촌문제와는 도저히 뗈래야 뗈수 없는 인과관계에 있는것》¹³ 이라고 하면서 일본노동자의 실업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재일조선인노동자문제와 조선농촌의 과멸을 재촉하는 재조선일본인문제는 필경 련쇄고리로서 인과관계에 있는것이라고 평하였다.

조선에서 일제의 가혹한 경제적락탈로 하여 산생되는 조선인실업자문제를 자연발생적으로 내버려두는 경우 이것은 대대적인 일본에로의 실업자이동을 초래할수 있었으며 일본경제에도 무시할수 없는 영향을 줄수 있었다.

이로부터 일제는 마다 조선에서 산생되는 30 만명에 달하는 농업실업자들이 일본으로 쓸어드는 경우 저들의 경계적혼란이 엄청날것이라는 위기의 식으로부터 그리고 저들의 대외침략야망의 실현방도의 모색으로부터 대대적인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을 획책하게 되었던것이다.

일제의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책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일제의 대조선식민지통치의 일환으로 정책화되고 관권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감행된것이라는데 있다.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 강제 《이민》책동은 일제의 대조선식민지통치의 일환으로 정책화되고 강압적으로 실시된것이였다.

일제는 우선 대조선식민지통치의 일환으로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 강제 《이민》을 정책화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이주는 크게 두단계로정책화되였다고 할수 있다.

그 첫단계는 9. 18 사변후부터 태평양전쟁발발이전까지, 두번째단계는 태평양전쟁시기라고 할수 있다.

¹³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년 15 페이지

일제는 이 기간에 대표적으로 《조선총독부 대만선농이주요강》, 《조선인만주개척 5개년계획》과 같은 조선인강제이주계획들을 작성공포 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9.18사변후 《제국정책상 가장 중대한 문제는 말할것도 없이 그 인구 및 식량문제밖에 없기때문에 제국은 속히 대륙발달의 방법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고 하면서 9. 18 사변후 《만주국의 출현은 이 목적달성에 절호의 기회를 준것이라고 말할수 있다.》¹⁴ 는 침략적론조가 강하게 울려나왔다. .

이런데로부터 이 시기 일본정부에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가 관련한 구체적인 안들이 제출되고있었다.

여기에서는 조선사람을 이민으로 선정할때 주로 인구가 많은데 비하여 경지면적이 적은 남부조선의 우수한 소작농민으로 한정하고 엄선하여 이주시킬것을 획책하였으며 특히 보통학교 및 농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훈련을 주어 이주시키도록 하는 등 저들의 식민계획에 따라 이주를 주도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¹⁵

이러한 론조들은 일제가 9. 18 사변후 중국 동북지방에 괴뢰만주국을조작하고 실제적으로 저들의 통치권이 확립된 조건에서 이전시기와는 달리 충분히 가능한 현실적조건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조선인강제이주를 실현할수 있다는데로부터 제기되고있었던것이였다.

1938 년에 일제는 괴뢰만주국과의 결탁하에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을 위한 《조선총독부 대만선농이주요강》을 조작하였다.

《조선총독부 대만농이주요강》은 1938 년 7 월 괴뢰만주국정부가 《선농이만》의 취급을 수정한것과 관련하여 조작공포되였다.

이 《요강》의 공포와 함께 강제 《이민》계획은 보다 구체화되고 그 실행이 보다 촉진되게 되였다.

이 《요강》은 《이민할당내용》, 《인원선발표준》, 《이주자의 결정》, 《이민의 수송》, 《이민에 대한 훈련》, 《이민에 대한 관계기관의 원조》, 《이주증을 소지하지 못한 도만(만주이주) 자의 조치》로 되어있었다.

이 《요강》에서 주목되는것은 《이주증을 가지지 못한 만주이주자의조치》조항이였다.

¹⁴ 《만주 및 조선이민실행안 의견개요》 일문 1932년 1 페이지

¹⁵ 《만주 및 조선이민실행안 의견개요》 일문 1932년 6 페이지

이 규정에서는 이주증을 소유하지 못한 조선농민은 절대로 만주이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선과 만주에서 서로를 협력하여 국경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고 이주증불소지자의 단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열차에 이동경찰, 역주재 경찰관들로 이주증을 가지지 못한 조선농민들의 만주이주를 단속하고 이전 거주지로 송환하도록 하였다.¹⁶

이 규정은 일제가 조선농민들의 중국 동북지방에의 이주를 저들의 수중에 안전히 장악하고 장악통제를 실시하기에 편리한 조건을 조성한 것이었다.

한편 이것은 일제식민지통치에 항거하여 중국 동북지방에 망명하는 조선인 반일운동자들에 대한 일종의 탄압조치로 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이주가 조선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집행되는 강제징발이었다는 것이다.

1941년 태평양전쟁도발후 일제의 조선인강제이주정책은 새로운 단계에서 정책화되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우리 나라 농촌의 농산물과 노동력을 약탈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조선농촌에 대한 일제의 약탈책동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것의 하나가 바로 전시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감행된 《조선농촌재편성계획》 조작책동이였다.

일제가 조작한 《조선농촌재편성계획》의 반동적 목적은 《사회적안정과 생산력증장》이라는 기만적이며 약탈적인 미명하에 우리 나라 농촌을 저들의 침략정책에 맞추어 재편성함으로써 농산물과 인적자원을 강그리 강탈하려는 데 있었다.

전시체제시기 조선농촌에서 일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군수식량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였다.

일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1941년 7월 《조선농촌재편성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그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1942년 1월~5월까지우리 나라를 남부, 중부, 서북부 3지구로 나누어 부락 및 읍,면에 대한 조사와 농업경영조사를

¹⁶ 《조선경제년보》 일문 개조사, 1939년 378페이지

실시하였다.

일제가 이러한 조사를 진행한 목적은 우리 나라 농촌의 인구, 경지, 로력, 경영에 걸친 기본조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농산물략탈과 농촌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략탈하는데 알맞는 농업경영규모를 지역별로 설정하려는데 있었다.

1942년 6월 일제는 식량부족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이미 검토되고있던 《조선농촌재편성계획》을 침략적인 전시농업정책의 중점과제로 설정하였다.

당시 총독 고이소는 부임이후 《매일신보》, 《조선》 등 어용신문들을 동원하여 《조선농촌재편성계획》에 대한 특집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선전하게 하였다.¹⁷

일제는 전시식량략탈과 군수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동력공급을 위한 농업인구의 적당한 배치, 로무자 및 개척민의 적극적인 송출 등은 적합한 경영규모를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일제는 조선농촌의 농가호수를 조선의 전체 총호수의 40%정도로 만들려고 획책하였다.

그것은 1942년 현재 농가호수가 전체 총호수의 73%로서 계획대로 40%만 남기고 나머지 30%이상을 농촌에서 강제로 내쫓는다면 쫓겨난 농가호수는 128만 8천여호에 달하게 되고 결과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2.8정보에 이를수 있게 되기때문이었다.¹⁸

이것은 일제가 농산물의 대량적인 략탈과 군수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동력원천확보를 위해 수많은 조선농민들을 강제로 자기 마을들에서 내쫓으려고 계획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일제는 《조선농촌재편성계획》의 조작을 위하여 《만주개척민송출계획》을 강행시켰다.

이미 일제의 중국 등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이민책동으로하여 1941년말에는 그 수가 150여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1942년 10월 《조선인민주개최 5개년계획》을

¹⁷ 《매일신보》 1942년 10월 20일~11월 6일부, 《조선》 1942년 11월호 특집 참고

¹⁸ 《매일신보》 1942년 11월 3일부

조작하고 매해 1 만호씩 총 5 만호를 만주로 강제이주시키려고 하였던 것이었다.¹⁹

당시 일제는 이것이 계획대로 되면 조선의 농가호수가 61%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범죄적인 조선농촌재편성계획에 《부합》되는 농가가 설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이번 대동아전쟁에서 제국의 남방작전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북방의 란리를 평정하고 국가방위를 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므로 제 1 기계획의 완료와 함께 1942 년부터 특별히 현하의 전시태세에 적응한 제 2 기 5 개년계획을 확립하고 개최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도모하여 시국의 요구》²⁰에 응하였다고 떠벌였다.

이것은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 책동이 철저히 일제의 침략정책에 따라 규정되고 강행되고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과 우리 인민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각종 농촌통제법에 의하여태를 묻은 정든 고향을 눈물속에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이국땅에서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게다가 일제는 1941 년 1 월 식민지적이며 침략적인 인구정책을 규제한 《인구정책확립요강》 도 조작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해외이주민에 대한 일본인이주민의 지도적지위에 대하여서도 규정되었다.

일제는 《인구정책확립요강》 에서 인구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본인들이 《동아공영권의 확립, 발전의 지도자라는 긍지와 책임과 임무를 자각할것》²¹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인들속에 야마도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는 허망한 우월감을 불어넣어 지배자, 통치자로서의 의식을 심어주는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고 보았다.

이런데로부터 일제는 일본인들속에 《건전한 해외이주사상의 보급》을주장하였고 《우수한 개최이주자의 양성강화》²²를 추구하였다.

일본인의 대량적인 해외이주는 곧 현지에서 해당민족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 《조사회보》 34 호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2 년 40 페이지

20 《조선사정》(소화 19 년판)조선총독부 1943 년 309~310 페이지

21 《인구정책과 국토계획》 일문 인구문제연구회, 1942 년, 부록 2 페이지

22 《인구정책과 국토계획》 일문 인구문제연구회, 1942 년, 부록 2 페이지

일제의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 정책은 철저히 일제의반동적인 인구정책하에서 결정된 것이었으며 저들의 대략침략정책과 가혹한 경제적략탈을 목적으로 하여 강행된 범죄적인 식민지정책이었다.

일제는 또한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주》 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수단들도 조작하였다.

《선만척식주식회사》 와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 는 그 대표적인 수단들이었다.

일제는 1936 년 6 월 17 일 《선만척식주식회사령》 을 공포하는 한편 《이민》 정책을 강압집행할 기관인 《선만척식주식회사》 라는 력탈적인기관을 설치하였다.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척식사업을 주되는 목적으로 하는 《<선만척식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계획을 제 69 의회에 제안》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의회를 통과하여 1936 년 9 월 제령에 의하여 그 설립²³ 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회사는 철저히 일제의 식민지적인 조선인강제 《이민》 실행기관으로 창설되었으며 조선총독부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움직이는 식민지통치기구의 하나였다.

《선만척식주식회사》 는 일제가 서북조선과 만주에서 조선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척식사업에 필요한 《자금공급》 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였으며 그 본사는 경성에 설치하였다.

이 회사의 운영은 철저히 조선총독의 주관하에 운영되었다.

회사의 존재와 경영활동은 조선총독의 권한에 관한 문제였다.

《선만척식주식회사령》 제 5 조에서는 《선만척식주식회사》 사의 존립기간은 설립한 날부터 30 년으로 하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이것을 장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 2 조에서는 이 회사의 자본금증가도 조선총독의 인가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규정하였다.

이 회사는 사무의 관리, 선만척식채권의 발행을 비롯하여 일체 실무적인 문제²⁴ 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조선총독에게 있었다.

²³ 《조선경제년보》 일문 개조사, 1939 년 370 페이지

²⁴ 《조선총독부관보》 일문 제 2 816 호 1936 년 6 월 4 일

《선만척식주식회사》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난지 12 일만인 1941 년 12 월 20 일 제령 제 333 호로서 폐지되었다.²⁵

이처럼 《선만척식주식회사》는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강제 《이민》 실행을 위한 기구로서 철저히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있었으며 식민지정책집행의 실제적인 수단으로 조작된것이였다.

이 회사는 만주에 설립된 《만선척식주식회사》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조선인강제 《이민》책동에 광분하였다.

《조선총독부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규정》을 1940 년 4 월 10 일 《조선총독부령》 제 100 호로 조작공포하였다.

이 훈련소는 만주에 대대적으로 들이치는 조선인이주민들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드는데서 주동적인 지휘를 담당할 골간들을 키워 목적으로 설치한것이였다.

이 훈련소에는 3 개의 부를 두었는데 이 부의 사명을 보면 그 목적을명백히 알수 있다.

《조선총독부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규정》의 제 1 조에서는 《제 1 부에서는 만주개척민의 지도자로 될수 있는자를, 제 2 부에서는 만주개척민의 중견자로 될수 있는자를, 제 3 부에서는 만주개척민으로 될수 있는 청년의용단원을 훈련한다.》고 규정되였다.

이것은 이 훈련소가 일제가 끌어간 조선인강제 《이민》자들을 지휘 감독할자들을 정규적인 훈련을 주어 키워내며 이자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저들의 이민정책집행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메로부터 조작된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이 훈련소가 명백히 중국동북지방에 강제이주시키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목적으로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3 개의 부는 훈련기일도 규정되였는데 제 1 부, 제 2 부는 2 개월로 제 3 부는 1 개월로 하였다.

이 규정에는 이 훈련소의 훈련항목도 규정되였다.

이에 의하면 훈련항목은 《훈육, 보통학과와 농업》으로 규정하였다.

²⁵ 《조선총독부관보》 일문 제 4 473 호 1941 년 12 월 20 일

여기서 《훈육》은 《황국정신을 키우고 만주건국의 본의를 명백히 하며》이것을 실천적으로 지도하는것을 주요취지로 규정하였다.

보통학과는 《일상필수의 지식을 증진하는것을 주요취지》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국어, 력사, 지리, 수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생활에 필요한것을 선택하여 이것을 주도록 하며 특히 《훈육》과의 련계에 류의하도록 하였다.

농업은 《농업에 관한 지식기능을 얻어 근면력행의 기풍과 근로호애의정신을 양성하며 만주국산업의 개발을 돕는것을 주요 취지로》한다는 명분하에 경종, 축산, 농산가공, 농업경영, 립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과 또는 실습에 의하여 이것을 주며 이것도 《훈육》과의 련계에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훈련소에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선발대상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훈련소에 입소해야 할자는 도지사가 추천한 입소지원자가운데서 《사상(황국신민사상, 즉 친일사상을 말함-인용자)이 견고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일정한 경력을 가진자들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훈련생의 추천절차는 도지사가 그 도에 할당된 추천할수 있는 인원수의 입소지원자를 훈련소장에게 추천하도록 하며 훈련소입소지원자는 이미 작성된 양식의 청원서, 리력서, 건강진단서 및 호적사본을 첨부하고 이것을 소속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훈련생으로서 입소를 허가받은자는 부형 또는 친족중에서 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일체 사항을 인수하는데 만족할수 있는 보증인을 정하고 입소할때 보증서 및 맹약서를 훈련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훈련생들중에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거나 저들의 이민정책실행에 신체적으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퇴소시키도록 하였으며 훈련을 마쳤다고 인정된자에게는 저들의 주구로 인정하는 《졸업증서》를 수여하도록 하였다.²⁶

이러한 조치들은 일제가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을 정책화하고 그 실행을 국가적조치로서 강압적으로 강행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 준다.

이 기관들은 일제의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침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²⁶ 《현행 조선법령집람》 제 3 권 일문 조선생정학회 239~240 페이지

철두철미 조선인강제 《이민》 정책을 직접적으로 실현한 현지집행기관들이었다.

이 훈련소에서는 일제가 끌어낸 집단이주민중에서 중견청년 400 명을선발하여 훈련시켰다.

이 훈련소에서는 《만주국건국정신》, 《일만일체의 불가분의 신념》, 《선만일여의 불가분의 정신》 등의 노예적이며 침략적인 사상주입을 강제적으로 감행하였다.²⁷

일제가 주입한 이 《정신》, 《신념》 따위들은 모두 중국 동북지방을 완전히 장점하고 이를 저들의 《공고한 후방기지》로 만들어 장차 《대동아공영권》의 침략적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반동적인것이였다.

일제는 이러한 반동적인 《이민》 정책과 수단들을 조작하고 이것을 리용하여 강제 《이민》 책동을 감행하였던것이다.

일제는 또한 장압적인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에 대한 강제 《이민》 책동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령세농민들과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들을 강제 《이민》 대상으로삼고 강제이주시켰다.

일제는 화천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악용하여 화천민들이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면서 《험악한 화전생활을 하는것보다는 광대한 자유의 천지에 이주하는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할것이며 또 바랄것이라 생각한다.》²⁸ 고 떠벌이면서 화천민들을 총칼로 위협하여 강제이주시켰다.

또한 강제 《이민》 정책에 따라 식민지통치기구들을 동원하여 령세한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강제 《이민》 시켰다.

일제는 조선농민들을 강제이주시키기 위하여 각 도의 도지사들에게 이민자수를 할당해주고 그것을 관련으로 집행하게 하였다.

일제는 당시 조선남부지방에서 령세농민들을 《이민》 들을 대대적으로 끌어갔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집단이민은 주로 인구밀도가 조밀한 남선지방의 각 지방에 할당》²⁹하였다고 떠벌였다.

²⁷ 《시정 30 년사》 일문 조선총독부 1940 년 917~318 페이지

²⁸ 《대만조선이민의 건설성》 일문 조선공론사 1933 년 78 페이지

²⁹ 《시정 30 년사》 일문 조선총독부 1940 년 916 페이지

이것은 일제가 이민정책실현을 위하여 농민들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한 조선남부지방을 주요대상으로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비교적 토지가 많고 비옥한 조선남부지방에서 조선농민들을 쫓아내고 토지를 저들의 수중에 더 많이 장악하기 위한 음흉한 목적실현도 동반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일제는 또한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그 무슨 《구원》의 혜택이라도 베푸는듯이 기만하며 그들을 강제적으로 《이민》시켰다.

단적인 실례로 1934 년 우리 나라 남부지방에서는 례년에 보기 드문 큰물로 하여 많은 리재민들이 생겨났는데 일제는 이들을 중국 동북지방의 봉천현과 류화현 삼원포 등지로 강제로 끌어갔다.³⁰

이리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강제 《이민》책동으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산설고 물선 중국 동북지방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감행한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책동이철두철미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산물이며 관권의 힘으로 강요된 조선인강제련행이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제의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강제 《이민》책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조선농민들을 령락시키고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생활을 강요한 범죄행위라는데 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선인민의 사회적처지나 생활처지가 다 그리하였던것처럼 중국 동북지방에 강제 《이민》으로 던져진 조선사람들의 운명이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달리될수 없었다.

《황국신민》이요 《왕도락토》, 《오족협화》를 떠들면서 정든 제나라 제땅에서 조선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내어 중국 동북지방에로 강제이주시킨 일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

이들은 극도의 민족적차별속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선 중국 동북지방에로 강제이주당한 조선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 어떤대우도 받을수 없었다.

일제는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경계적략탈을 위해 수많은

³⁰ 《일본군국주의 조선침략사》(1910-1945) 사회과학출판사 1975 년 251 페이지

조선사람들을 강제이주시켰지만 이들은 그 어떤 정치적권리도 초보적인 사회적대우도 받을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조선인과 관계있는 일본의 재만 각기관은 모두 조선인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고 그 <보호구제>에 관하여서는 아무때나 도외시하기도 하고 심한 차별대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경원시하기도 한다》³¹고 실토하였다.

그 이유는 일제가 아무리 《5 족협화》, 《평동무차별》, 《공존공영》을 떠들어도 단 한가지 조선사람이라는 리유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 이주된 조선사람들을 상대한 통치기관들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차별대우를 실시하였다.

재만 각 통치기관들의 조선인차별대우를 보면 우선 조선사람들은 그어떤 사회정치활동에 대한 참여권도 없었다.

괴뢰만주국 인사처에서는 조선사람들에 대하여 따로 예산이 없었으며 조선사람은 관리로도 채용하지 않았다.

괴뢰만주국의 관리는 1933 년 당시 만주인이 약 1400 여명, 일본인이약 500 여명을 채용하였으나 조선사람은 저우 최하급관리 10 명에 지나지않았다.

또한 조선사람들에게는 언론기관의 설립도 허가하지 않았다.

겨우 조선인관리를 쓴다해도 판임관대우를 받는 순사정도였다.

일제령사관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령사관에서는 조선인언론기관 불허가제를 실시하였으며 관리임명은 거의나 없었다.

만철 및 기타 회사들도 조선사람들에 대한 존재자체를 무시하였다.

만철과 기타 관계회사에는 3만명의 사원이 있었으나 조선사람은 사무원 2명, 하급고용인 30 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기관에서는 년액 180 여만원의 산업조성금과 1 400 만원의 부속지경영비가 있었지만 이것은 일본인의 위해서만 사용되었고 조선사람을 위해서는 한푼도 지출되지 않았다.

교육기관의 설치도 마찬가지였다.

³¹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 년 30 페이지

일제는 중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을 일본인을 위해서는 70 여교, 만주인을 위해서는 12 교를 경영하였으나 조선사람들을 위해서는 1 교도 없었다.

초등학교는 조선인아동을 위한 보통학교로서 내용이 빈약한것이 겨우 13 교를 보조적으로 경영할뿐이었다.

이밖에도 조선인이 주민들에게는 《사회시설, 사회사업보조 및 문화사업보조》도 없었다.³²

이러한 사실을 일제가 중국 동북지방에서 조선인이주민들에게 실시한민족차별정으로서 당시 조선이주민들이 이주지들에서 그 어떤 민족적권리도 사회적대우도 받을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제는 중국 동북지방에 강제이주된 조선사람들에게 집단부락제를 시하여 그들의 자유를 억제하였다.

집단부락은 본래 1933 년부터 설치되었다.

일제는 중국동북지방에 강제이주된 조선사람들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원활히 하고 그들이 이 시기 적극적으로 벌어진 항일무장투쟁에 합류하는것을 두려워한데로부터 악명높은 집단부락제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두만강연안의 산간오지에 널려있는 수많은 농가들을 집단부락에 끌어들이면 조선인민혁명군이 고립무원한 상태에 놓이게 될것이고 종당에 유격대가 존재를 마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유격구를 주동적으로 해산하자 동만에서 《치안》이 확보되었다느니, 《치안》 확보에서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집단부락의 설치였다느니 하면서 그 《경험》을 장백일대에도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산간지대에 있는 집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붙잡아 집단부락에 몰아넣었다.

일제의 집단부락에 대하여 조선민족해방동맹기관지 《화전민》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집단부락, 집단농장, 모범농장 등은 모두 일본놈들이 군사상 필요한 곳,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가 설정하였다. 그래야 급한 일이 있을 때면 쉽게 또한

³²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 년 30 페

필요하게 마음대로 우리 백성들을 몰아다가 쓰러는것이다.

2.집단부락은 인민을 한곳에 몰아넣고 감시하고 압박하기 대단히 쉬운것이다.

3.집단부락은 인민의 피땀을 착취하기 쉬우며 또한 전쟁에 량식을 해결하기 좋은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집단부락안에 백성의 모든 량식, 짐승을 몰아다가 군용품으로 쓰러는것이다.

4.집단부락은 청년남녀를 무장시켜 훈련준후 앞으로 큰 전쟁에 값있게 썩썩먹으려는것이다.

5.집단부락은 놈들이 방어전의 필요로 쓰러는것이다.

6.일제는 집단부락에서 민족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주구들을 시켜 보증하고 민회, 협조회 등 제조직을 성립하고 친일노예교육사상을 주입시킨다.》³³

조선사람들은 일제의 강요하에 집단부락에 끌려들어가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제는 이런 수용소와도 같은 집단부락을 만들어놓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으며 여기에 《보갑제도》를 실시하였다.

《보갑제도》는 중국에서 중세기부터 실시하여 왔고 그후 일제가 대만,관동주에 대한 통치유지에서 《성과》를 올려 온 제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성원속에서 날로 장성강화되는데 극도로 당황한 일제는 《보갑제도》를 채용실시하는것이 상책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악법을 1933 년부터 준비하여 1934 년 1 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보갑제도》는 10 호를 한 패로 하고 촌이나 그와 비슷한 구역안의 10 개 패로써 1 개 갑을 편성하며 몇개의 갑으로 한개의 보를 만들어 그것을 직접 경찰서장이 통제감독하게 하였으며 여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습격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무장자위단까지 두었다.

일제는 《보갑제도》에 따라 한 패안의 주민들이 저들의 법을 위반하였을 배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고 공동으로 차별을 하게 되어있는 《10 가련좌법》을 적용하였다.

일제는 《보갑제도》를 실시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정치 공작원들과

³³ 《화전민》 1937 년 7 호 5~16 페이지

지하혁명조직들의 활동, 인민들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반일적요소들을 제때에 적발하여 탄압하며 인민들로 하여금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게 하여 단합할수 없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의 집단부락정책에 의하여 인민혁명정부의 관할밖에 있는 모든행정구역의 주민들은 싫건좋건 토성과 포대로 둘러싸여있는 밀집부락에 들어가서 갖은 악법들과 중세기적인 질서와 지배밑에서 두더지같은 생활을 하여야 하였다.

우리 인민은 중국동북지방에 강제이주되어 집단부락이라는 일종의 감옥과 같은곳에서 온갖 자유를 박탈당하고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지않으면 안되었다.

다음으로 중국 동북지방 조선이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지않으면 안되었다.

9. 18 사변후 중국 동북지방에 이주한 조선사람들은 극도의 생활난에서 허덕이였다.

일제는 폭압을 동반한 강제적방법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중국 동북지방으로 끌어가면서도 이주지에 그 어떤 생활조건이라도 마련되어있는듯이 기만하였다.

그러나 이주지에는 황막한 황무지만이 이들을 맞이하였다.

장제이주당한 조선사람들은 도착한 첫날부터 플뿌리와 나무껍질로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가까스로 밭을 불이고 생활하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은 극도로 빈곤하였다.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한 조선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토지가 없는 소작농의 처지에 있었는데 이들의 생활은 매우 빈곤하였다.

중국 동북지방에 강제로 이주된 조선사람들에게는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함께 엄혹한 생활난까지 겹쳐들었다.

경지면적도 넓고 수입도 비교적 괜찮았다고 하는 봉천지방 소작농들의 1932년 3월 현재 수지계산표에 의하면 수입금 286 원에 지출금은 81 원 79 전을 제하고 나머지 수익금 204 원 21 전이 1년간 1호당의 생활비였 E.

이 생활비는 1호당 5명의 식구가 있다고 가상할때 1인당 일생활비가 56전도 되나마나하였다.

이 204 원 21 전도 쌀값, 부식물값, 피복값, 교육비, 기타 잡비 포함 40 원 14 전을 제하고 나면 그 나머지 돈으로는 정말로 빈약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³⁴

오지의 조선인소작인들의 생활은 더 비참하였다.

이들은 고리대적인 소작료착취를 비롯하여 각종 명목으로 착취를 당하였는데 과중한 부담으로 하여 도저히 앞에서 제시한 봉천지방 소작인들의 수입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들 1호의 5명식구의 생계비는 43 전정도였는데 즉 1인당 8전의 생활비 조차도 바라볼 수 없었다.³⁵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민들에게는 생존권조차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다.

1933년에 탈표된 《봉천지방의 수지계산표》에서도 일제는 《재만 조선인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빈곤한가를 명백히 한다.》고 전제하고 그 실태를 서술하였다.

당시 이주해간 조선인소작농들은 소작료가 과중하였고 고물리의 리자를 마쳐야 하였으며 각종 명목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런데로부터 《한 가족의 5명의 하루 생계비는 43 전남것한것》으로서 이것은 식구 《1인당 8전생활조차 바라볼 수 없는》 비참한 것이었다.³⁶

그나마도 이것은 재만조선인소작농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소작경지면적도 넓고 수입도 많다고 하는》³⁷ 봉천지방 소작인들의 실태였다.

일제는 강제이주시킨 조선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식민지적리운을 짜내기 위하여 황무지들을 일정하게 대부해주고는 그것을 조선사람들의 피으로 개간하게 하고는 토지세, 물세, 비료세 등 각종 명목으로 수많은 량곡을 빼앗아가는 고리대적착취를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이주민들은 뼈빠지게 일을 하여도 무서운 빈궁에서 헤어나갈 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강제이주시킨 조선농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농산물을 약탈하여 《관동군》을 비롯한 침략군의 식량과 군수품으로 사용하였다.

³⁴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년 27페이지

³⁵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년 28페이지

³⁶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년 28페이지

³⁷ 《중대위기에 직면한 재만조선인문제에 관하여》 일문 만선연구사 1933년 26페이지

일제는 강제이주시킨 조선사람들을 군수품운반이나 군사시설물공사장으로 끌고다니며 혹사시키거나 저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이처럼 9.18 사변후 광란적으로 감행된 중국 동북지방에로의 조선인 강제이주책동은 일제의 대조선식민지정책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그 범죄성을 그 무엇으로서도 부정할수 없다.

일본은 과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이와같은 범죄의 역사를 새세기에 와서까지도 철면피하게 부정하고 외면하고있으며 도리어 정당화하고있다.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면 그 역사는 되풀이되기 마련이다. 더우기 전체 조선민족은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강요당한 피눈물의 역사를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과거 일본의 범죄의 역사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정적인 태도에 격분을 금치못하고있다.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난날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만고죄악들을 끝까지 과해칠것이며 그 대가를 기어이 결산할것이다.

东北地区朝鲜人反对日本领事馆警察统治的斗争

李洪锡

(延边大学人文学院历史系)

【内容提要】 在近现代，日本在侵略中国的过程中，为了不断地扩大其侵略权益，利用通过不平等条约而攫取的种种“特权”，在东北朝鲜人聚居区广泛设立了众多的领事馆及其警察机构，对朝鲜人在内的各族人民进行了极其残酷的“统制”与镇压。忍无可忍的朝鲜反日团体同日本领事馆警察进行了殊死的斗争。该斗争最初是由朝鲜反日独立团体进行，后来则在中国共产党领导下进行了声势浩大的斗争，给日本领事馆警察的统治以沉重的打击。其中，延边地区朝鲜人的斗争更为突出。

【关键词】 东北地区；朝鲜反日独立运动；日本领事馆警察

关于近代东北地区朝鲜人的反日斗争，史学界已有相当深入的研究，写出了不少著作和论文。但是，这些研究往往偏重于同日军的作战方面，而忽略了朝鲜人同日本领事馆警察、亲日团体、密探、间谍等统治势力进行的斗争。在研究朝鲜人反日团体同日军作战时，也往往笼统地揭露日军“讨伐队”的罪行，而不具体分析“讨伐队”中日军与日本领事馆警察的有所不同的作用。何况，朝鲜人反对上述日本领事馆警察统治势力的斗争，贯穿于日本侵略者进行侵略、实行统治的全过程。因此，本文试图就此问题进行探讨，以求教于史学界专家和同行。

（一）日本领事馆警察机构在东北朝鲜人居住区的设置

众所周知，东北地区朝鲜人均来自朝鲜半岛。自从朝鲜李朝末期开始，由于其国内的自然灾害、苛刻的封建剥削与压迫，尤其是由于日本军国主义的侵略和实行“换位移民”政策，大量的流民迁入东北地区，广泛地杂居于中国人中间，在以延边地区为主的南北满各地形成了许多大小聚居区。历史造成的这种状况，却成为日本设置和扩充领事馆警察机构的借口。

日本为了把东北地区变为其殖民地，通过日俄战争击败俄罗斯后，并没有立即从南满撤兵。反而，根据自己单方面杜撰的“如有领事裁判权，就有权设置领事馆警察”的强盗逻辑，在其占领之地，不经中方同意，以“保护日本侨民”为借口，开始在安东、奉天、铁岭、长春、哈尔滨、齐齐哈尔等地设置了领事馆及其警察机构。¹

还有，在日俄战争期间早已以武力吞并朝鲜并攫取朝鲜外交权的日本，于1907年8月为了开拓侵略东北地区的“后门”，为了在同俄国争夺势力范围的竞争中处于有利的位置，公开以“保护取缔”朝鲜人为借口，制造了所谓的“间岛问题”。之后，日本在

中日交涉与谈判中要尽阴谋,于1909年9月逼迫清政府签订《图们江中韩界务条款》(简称“间岛协约”),并从11月开始在延边地区设置了领事馆警察机构。其中包括间岛总领事馆警察署、局子街分馆警察署²、头道沟分馆警察署³、百草沟出張所警察署⁴、琿春分馆警察署⁵。

至1915年,日本趁欧美列强因第一次世界大战无暇顾及远东地区之机,利用袁世凯想当皇帝而要得到日本支持的心理,逼迫他签订《关于南满洲及东部内蒙古之条约》(简称“满蒙条约”),据此又在各地增设了新的领事馆警察机构。日本仍以阴谋和威逼等手段,迫使中方同意,先后在农安、海龙、郑家屯、通化、掏鹿等朝鲜人较多的地区设置了领事馆(分馆)及其警察署。⁶同时,日本还直接以“保护和取缔”“不逞鲜人”(朝鲜反日独立分子)为借口,在南满朝鲜人聚居区里增设了不少“警察官吏出張所”。如大肚川、长白等地设置了几十个“警察官吏出張所”。⁷

日本为了在延边地区扩张其领事馆警察机构,强行把《南满东蒙条约》(1915年)应用到延边地区,制定领事馆警察机构的大扩张计划。据此,首先秘密地增设了天宝山警察分署⁸、八道沟派出所、南阳坪派出所。⁹后趁1920年进行“庚申年大讨伐”,占领延边地区战略要地之机,以“防止不逞鲜人团卷土重来”为借口,一下子增设了杰满洞、铜佛寺等10个警察分署。¹⁰

这样,1925年3月、1931年8月31日、1932年4月1日、1937年11月30日,在东北的日本外务省领事馆警察机构(警察署或警察分署),分别为28个、28个、32个、82个。¹¹其中,仅在延边地区的日本外务省警察机构分别为19个、19个、21个、29个,约占当年驻东北领事馆警察机构总数的67.9%、67.9%、65.6%、35.4%。如果加上朝鲜人人口数量仅次于延边地区的通化、海龙、吉林、敦化、桦甸、磐石等南满各地区,以及海林、宁安等北满各地区的领事馆警察机构,那么其平均比重将达到90%左右。同样,在同一时期,东北的领事馆警察分别为467名、557名、810名、1,131名。其中,仅驻延边地区的日本领事馆警察分别为397名、447名、493名、410名,约占当年驻东北领事馆的外务省警察总数的85%、80.3%、60.9%、36.3%。¹²如果加上上述的其它朝鲜人地区的领事馆警察机构的警察,那么,东三省日本领事馆警察总数中所占的其平均比例至少要达80%以上。这种情况,无疑说明日本外务省警察机构及其警察就是主要分布于大城市和以延边地区为主的朝鲜族大小聚居地区。

这样设置和扩张起来的日本领事馆警察机构,为了从中方手中夺取对于朝鲜民族的管辖权,进而镇压朝鲜人的反抗斗争,在朝鲜族人居区里一开始就采取了“以韩治韩”统治手段。领事馆警察机构直接采用朝鲜人警察和警察雇员,组织和利用“朝鲜人居留民会”、“保民会”等各种朝鲜人亲日团体,还培养和利用许多间谍和密探,对东北地区朝鲜人进行了统制。在此过程中,日本领事馆警察经常干涉朝鲜人的诉讼案件,制造同中国地方当的各种纷争与冲突,使得朝鲜人处于遭受双重统治和双重制裁的地位。日方还直接动用领事馆警察,制造了许多逮捕朝鲜人反日人士的事件,如几次“间岛共产党事件”、“通化事件”、“兴京事件”。还有,独立地或配合日军、伪满军

警，残酷地镇压了朝鲜人反日力量。“九·一八”事变以前进行的“庚申年大讨伐”、“九·一八”事变以后单独或配合日伪军警对朝鲜人反日部队进行的多次“讨伐”，就是典型的案例。这样，日本领事馆警察实际上成为东北地区朝鲜人的最大敌人。

（二）延边地区朝鲜人对日本领事馆警察统治的斗争

日本领事馆警察机构要对朝鲜人实行“统制”，朝鲜人必然要反抗其“统制”。延边地区朝鲜人的反抗斗争，大体上可以分为三个阶段：“庚申年大讨伐”以前、“庚申年大讨伐”至“九·一八”事变、“九·一八”事变到1937年末。

（1）“庚申年大讨伐”以前：

自从1909年日本在延边地区设置领事馆警察机构以来，朝鲜人因无法忍受其各种“统制”，便产生了强烈的排日心理。来自朝鲜的许多反日人士在延边地区朝鲜人部落建立了很多反日团体。如1910年代建立的“垦民教育会”，“农务契”等。“三·一三”运动以前，延边地区朝鲜人反对领事馆警察机构统治的斗争，就是在这些团体的指导下进行的。“二道沟事件”反映了延边朝鲜人的普遍的反日心理。1913年9月10日，头道沟分馆警察署的两名警察，以“视察朝鲜人户口及民情”为借口，来到所谓“排日鲜人巢穴”的耶稣教部落和龙县二道沟。当时，早已对领事馆警察“充满敌对心”的当地朝鲜人村民50多名，就痛打两名日警，没收他们的手枪，并把他们监禁起来。¹³这种事件，在“三·一三”运动以后就发生得更加频繁，其规模也越来越大。

在朝鲜“三·一”运动的影响下，1919年3月13日延边地区也发生了空前规模的反日示威运动，即“三·一三”运动。来自延边各地的3万左右的朝鲜人，在延边地区朝鲜人反日团体的指导下，在延边地方当局的同情和默认之下，云集在龙井，举行了声势浩大的反日集会和示威游行。该运动，最后被当局镇压，而其反日浪潮却迅速席卷了整个东北地区。“三·一三”运动无疑反映了朝鲜人要摆脱日本领事馆警察机构“统制”的强烈要求。

“三·一三”运动后，朝鲜人的反日斗争，开始转入了武装反抗的新阶段。自1919年春起，延边各地先后成立了大韩间岛国民会、大韩独立军政署等许多带有武装组织的政治团体和反日武装团体。这些团体在延边各地进行了各种形式的反对日本领事馆警察统治的斗争。

一是，朝鲜人反日团体直接打击了领事馆警察，尤其是重点打击了朝鲜人警察。朝鲜族反日团体，为了建立武装部队，有时直接夺取领事馆警察的武器，或者直接处决了领事馆警察。其最为代表性的事件就是“十五万元事件”。1920年1月4日下午6时许，大韩国民会的尹俊熙等6人在龙井南约十五华里的东良沟入口处，袭击了从朝鲜会宁护送朝鲜银行券15万元到龙井村的间岛总领事馆警察署的警察一行，当场击毙日本巡查长友嘉相次，将银行券全部夺走。¹⁴

反日团体经常设法警告领事馆警察署的朝鲜人巡查：“如果不立即辞职，将遭暗杀”。

结果，在领事馆警察机构里的朝鲜人警察中纷纷出现了“申请辞职者”。¹⁵ 1919年5月，连间岛总领事馆警察署的2名朝鲜人巡查也“因无法忍受胁迫”而提出了辞职，“其他朝鲜人巡查也在动摇”。¹⁶ 有时，朝鲜族学生借机对朝鲜人警察群起而攻之。如4月23日，在琿春县荒沟（琿春北方约九里）的北一中学举行毕业仪式，并举行了带有浓厚的反日气氛的运动会。学生们得知琿春分馆警察署的朝鲜人巡查崔秉珪前来进行侦察，便拿起棍棒群起而攻之，使其身受重伤。¹⁷ 有时，朝鲜族反日团体直接处决了罪大恶极的朝鲜人巡查。5月19日下午1时许，局子街分馆警察署的朝鲜人特务巡查李基鸿，在一家商店受到携带手枪的2名独立军队员的袭击而被击毙。¹⁸ 该事件对日本领事馆的冲击很大。当时，局子街分馆主任川南称：“李巡查遭难事件发生以来，鲜人巡查不愿单独执行职务”。¹⁹ 间岛总领事也承认，以少数警察出商埠地外，是很“危险”的。²⁰

二是，打击了领事馆警察机构的密探及亲日团体——民会。打击密探方面，所谓“安大和事件”²¹就是一例。安大和（日本名为江口常作）是个头道沟分馆的翻译和密探，经常给分馆提供了有关朝鲜人的各种情报。尤其是，“三·一三”运动暴发以后，“经常受到分馆的指示，热心从事密探工作”，给朝鲜人反日运动带来了极其恶劣的后果。1920年3月28日夜，朝鲜人反日团体军政署派朱基渊等5人来到位于二道沟水南村的他家，当场击毙了他。

在打击民会方面，反日团体有时抓住民会成员进行审问，了解其内幕；或强迫民会成员向反日团体提供反日运动经费，或打击替领事馆警察机构服务于邮政业务的民会邮递员。1920年4月4日，独立军战士56名携带步枪和手枪，袭击局子街青林洞的朝鲜人居留民会南阳坪分会长朴万寿家，并抓住当地民会议员朴凤来，到龙岩洞进行审问，使其坦白“内幕”，打掉其反动气焰。²² 9月22日，独立军战士申大湧等2名，抓住龙井朝鲜人居留民会理事安锡喆和杂货商任正纯，警告他们今后不要做“领事馆之狗”，并强迫他们提供军费。²³

1920年“青山里战役”，也反映了延边地区朝鲜人对日本领事馆警察机构统治的强烈的反抗心理。该战役是在日本仅靠领事馆警察力量无法镇压朝鲜人反日武装的情况下，动员其两万正规军进行“庚申年大讨伐”的环境下发生的。在这场战役中，主要由延边朝鲜人农民子弟组成的反日武装团体，以对日本领事馆警察机构的无比仇恨，歼灭了数百名日本正规军和警察，打掉了其嚣张的气焰。

（2）“庚申年大讨伐”以后至“九·一八”事变：

“庚申年大讨伐”以后，延边地区朝鲜民族主义团体领导的反日斗争走向低潮，代之以共产主义思想迅速得以传播，延边地区迅速成为共产主义运动的“温床”和新的反日斗争的据点。延边地区先后经历过高丽共产党（1921年至1926年）、朝鲜共产党满洲总局东满区域局（1926年至1930）、中国共产党东满特委（1930年至1935年）三个不同政党领导反日斗争的阶段。

在高丽共产党时期，龙井等地的学生、工人、农民建立各种马克思主义研究团体和反日团体，进行了各种形式的思想文化运动，打击了日本警察势力。如1924年1月10

日下午 11 时半，朝鲜人反日团体袭击南阳坪分署，击伤该分署朝鲜人巡查林时玩。²⁴ 在朝鲜共产党时期，1927 年、1928 年、1930 年连续组织大规模的反日示威运动，打击了日本侵略势力，也同日本警察势力直接进行过较量。如 1929 年 11 月 30 日，瓮声砬子的国民会外务部执行委员张寒星指挥的地方募捐队 3 名，遭到日本领事馆、天宝山分署及铜佛寺分署警察共 18 人组成的搜查班袭击时，他们奋力抵抗，击毙了搜查班指挥、巡查部长坪井三代治。这个坪井正是 1928 年 9 月 2 日在龙井的一次搜捕中，逮捕李正万等 71 名反日人士，因而获得奖金 50 元的抓朝鲜共产分子的“专家”。²⁵

从 1930 年“红五月斗争”起，朝鲜人在中国共产党的领导下，进行了轰轰烈烈的反帝反封建斗争。其中，最为代表性的事件是“五卅暴动”和“八·一吉敦起义”。在这两次暴动中，延边朝鲜人在进行反封建斗争的同时，也进行了反对日本领事馆警察机构的斗争。1930 年 5 月 29 日开始爆发“五卅暴动”后，30 日药水洞等各地暴动群众，包围头道沟镇，捣毁亲日团体“朝鲜人民会”，还直接袭击了头道沟领事分馆。在杰满洞，群众烧毁亲日组织“朝鲜人民会”的办公室；二道沟、三道沟等七处群众也奋起捣毁当地日本领事馆警察分署及其亲日机关。1930 年发生“八·一吉敦起义”后，延吉、和龙等各地群众连续组织起义，袭击了“朝鲜人民会”。汪清县、琿春等各地群众，也烧毁民会事务所，清算亲日分子。可见，这些斗争给日本领事馆警察机构及得到该警察机构支持的民会以重大的打击。在此情况下，10 月 21 日全延边的十八个民会会长“声明总辞职”。²⁶ 对此，日本外务省称：“5 月 30 日共产党暴动以来，民会工作人员的人身安全受到威胁”，“结果从 10 月末到 11 月初旬，民会长及议院等以不能继续开展会务为由，相继提出了辞呈”。²⁷ 间岛总领事亦称：由于“共匪暴动日甚一日”，“民会事务被停止”，“民会同各地方部落间的连络完全被杜绝”。

可见，“庚申年大讨伐”以后，延边朝鲜人各反日团体的反日斗争开展得相当活跃。这表现在朝鲜人反日团体的“出动情况”方面。1923 年至 1931 年间朝鲜人反日团体共出动 2,220 次 23,652 人次。²⁸ 在这些活动中，既包括民族主义团体的活动，又包括共产主义团体的活动。因此，1930 年 7 月 30 日，日本外务大臣称：“在间岛发生了不管日本还是支那都没有事先预知的两种事态：一是，间岛变为“不逞鲜人”（民族主义者团体）根据地；二是，最近间岛变为共产党策源地”，“其新形势对朝鲜的治安构成重大的威胁”。

29

(3) “九·一八”事变至 1937 年：

1931 年“九·一八”事变爆发的当月，延边朝鲜人在中共东满特委及各县委的领导下，发动了声势浩大的“秋收起义”。他们一方面提出“三·七”、“四·六”减租要求，同亲日地主进行减租斗争；另一方面又同日警及日寇走狗进行了斗争。延吉、汪清、琿春等县共有 1.5 万余朝鲜人投入这场战斗，包围和冲击当地日本警察机构和亲日走狗的住宅，进而“清算日本走狗”，捣毁其走狗机关。八道沟一带 2,000 余农民包围受日警保护的日本人农场，把粮食分给了农民。开山屯一带上千名农民“抬着因领导农民斗争而被日本警察杀害的农民协会领导人姜基范的遗体，列队在驻龙井的日本总领事馆门前示

威，抗议侵略者屠杀中国人民的罪行”。³⁰ 至 1932 年，延边地区的两万余朝鲜人，还奋起参加了党领导的“春荒斗争”。他们向亲日地主“借粮度荒”，“捣毁日本走狗机关，驱逐和清算亲日走狗，抗议日本军警屠杀群众（的）暴行”。延吉县大兴洞附近几个村子的 500 余农民，将处死的亲日走狗死体装在牛车上，列队到老头沟警察分署门前示威。参加春荒斗争的各地朝鲜人，开展“夺枪斗争”，从日警和亲日走狗手中夺枪，在各地建立“赤卫队”等群众性反日武装组织，为创建党领导下的反日游击队，打下了基础。

31

“九·一八”事变以后，日本领事馆警察机构配合日军，对延边地区朝汉人民实行了法西斯统治。因此，延边人民在中国共产党的领导下，进行了反对日伪法西斯统治的武装斗争。这种武装斗争既针对关东军及宪兵队、又针对领事馆警察机构。因为后者是对于各族人民的最直的统治力量。这些斗争先后经历了反日游击队时期、人民革命军时期、抗日联军时期。

据日方统计，1932 年、1933 年、1934 年、1935 年、1936 年朝汉民族反日部队“出没”的次数分别为 984 次、747 次、954 次、662 次、216 次，平均每年 712 次；同时期出动的人员分别为 3,470 人次、11,984 人次、22,025 人次、16,010 人次、3,316 人次，平均每年 11,361 人次。³² 在这些活动中，他们主动进攻领事馆警察机构、集团部落、列车、马车、汽车等，沉重地打击了日本侵略势力。在这些活动中，反日部队经常袭击了日本警察分署及其人员。据日方报道，1932 年 10 月，铜佛寺分署署员 6 名和自卫团员若干名，突然遭受 30 多名武装“共匪”的包围和攻击。还有，在南阳坪分署，皆川巡查在追击“共匪”途中受到 8 名“共匪”的攻击，受重伤。

据日方统计，1932 年 8 月至 1933 年 9 月、1934 年³³、1935 年³⁴、1936 年间，朝汉民族反日部队及救国军袭击领事馆警察机构共有 51 次³⁵。其中，对八道沟分署的围攻最多，共有 12 次；其次为依兰沟分署，共 11 次；再次为苇子沟分署、老头沟分署，各 5 次。这种围攻，一般由几十名反日部队围攻一个警察分署，有时候甚至以 500 多名来围攻，围攻时间一般达 1~2 小时，有时候长达 4~5 个小时。这样，反日部队经常对领事馆警察机构构成很大的威胁。间岛总领事永井说：最近“共匪行动非常凶恶”，“具有相当大的抵抗力”。为了避免“不测的事故”，他要求各警察分署禁止以少数人员的“出差”。

36

由于反日部队如此频繁地袭击领事馆警察机构，日本不得不把一些警察机构暂时撤回到“安全地带”。对此，1933 年间岛总领事也承认说：由于“匪贼”、“共匪”的频繁的袭击，不得不撤退远离分馆警察署的部分分署。如 4 月 1 日三道沟分署撤退到二道沟、4 月 3 日百草沟分署撤退到局子街、4 月 9 日瓮声砬子分署撤退到天宝山。³⁷

反日部队还经常袭击了日本领事馆警察机构“统制”下的“集团部落”。如 1934 年袭击次数为 47 次。同时，也经常袭击了自卫团。

反日部队也经常袭击列车、马车、汽车等日方的运输工具。1935 年 5 月 2 日上午 2 时 30 分，东北人民革命军二军独立师第一团五连 80 名（领事馆称这些人皆为朝鲜人³⁸）

联合“明山好”、“天良军”各 50 名，在京图线哈尔巴岭、大石头之间，袭击从朝鲜清津开往新京（长春）的 202 号国际列车，击毙了日伪军警及其他人员 13 名、重伤 10 名，轻伤 9 名，逮捕 11 名。³⁹由于反日部队经常袭击，使得各铁路沿线的警察分署不得安宁。1932 年 12 月至 1933 年 10 月，为了保卫天图线改筑工程，领事馆警察共出动 755 次，其人数达 4,818 人次；1932 年 1 月至 1933 年 10 月，为了保卫敦图线工程，领事馆警察共出动 304 次，其人数达 4,998 人次；1933 年 3 月至 10 月，为了保卫图宁线工程，领事馆警察共出动 212 次，其人数达 5,300 人次。⁴⁰ 1933 年 11 月，间岛总领事永井亦称：“满洲事变以来”，领事馆警察因同反日部队的作战而“持续着不眠不休状态”、“没有安宁的日子”。⁴¹

领事馆警察机构罪行累累，也必然要付出了相当的代价。“九·一八”事变至 1937 年 11 月废除领事馆警察机构以前，延边地区日本领事馆警察在“讨伐”中死亡者达 23 名⁴²，受伤者 39 名⁴³。其他被击毙者、击伤者、被捕者都是伪满军警和自卫团的“满人”和“鲜人”⁴⁴

由于中国共产党领导下的延边地区各族人民的反日部队如此顽强战斗，1935 年 11 月 15 日关东宪兵队司令官东条英机，作为驻满大使馆警务部长称：“间岛地方，由于地理上、历史上的原因，匪贼的行动非常顽强”，“想要根除它，还需要进一步下工夫和努力”⁴⁵，由于“（它是）特殊地带，要根绝它，不容易”，“可谓满洲治安最后留下的癌肿”。

46

（三）南北满地区朝鲜人反对领事馆警察统治的斗争

南北满地区朝鲜人反抗日本领事馆警察统治的斗争，也包括民族主义团体领导的时期和共产主义团体领导的时期。这些斗争也可分为“九·一八”事变前后两个阶段加以考察。

（1）“九·一八”事变以前：

自从 20 世纪 10 年代起，南满地区朝鲜人先后建立“耕学社”、“参议府”、“正义府”、“朝鲜革命党”等民族主义反日团体，开展了各种形式的反日斗争。朝共南满区域局和中共磐石县委、中共南满特委，也先后领导了南满各族人民的反日斗争。

最初，反日斗争主要以打击日警和亲日团体保民会为主，其形式多种多样。一是，借机打击“出差”中的领事馆警察和保民会成员。如 1921 年 10 月 24 日，通化分馆警察署的巡查中村、来自朝鲜总督府的监督小川、保民会总会长李寅秀、支部会长白××等 7 人，“出差”兴京县庙岭街调查反日团体情况之后正在返回分馆的途中，受到朝鲜人反日团体的袭击，结果监督小川喜一和白用范负了伤。⁴⁷ 二是，直接袭击保民会干部的家。如居住于通化县喇咕沟河陵岭的保民会员金锡解，曾作为保民会的调查员，“出差”各地，从事过对各反日团体的“调查活动”。得知此事的反日部队，于 1920 年 8 月 7 日夜晚，派遣 6、7 名队员袭击他家，以手枪处决了他。⁴⁸ 于是，原保民会会长李寅

秀等 12 名致拓殖局的《请愿书》中称：保民会会员 322 名，已不幸被“不逞辈”所杀害。⁴⁹

保民会解散之后，打击日本领事馆警察机构及亲日团体“民会”的斗争在继续。如通化分馆警察署的朝鲜人巡查文永善，平时在侦察朝鲜族反日活动，收集情报，逮捕反日人士方面很卖力。1929 年 11 月 22 日，国民府第二队第一分队的五名队员，在通化附近枪决了他。⁵⁰ 1930 年 1 月上旬至“九·一八”事变以前，共产党领导下的由朝鲜族组成的游击队在桦甸、磐石、永吉等县共处决了 10 名罪大恶极的民会会员。⁵¹

在北满地区，朝鲜民族主义者曾建立过“新民府”等反日团体，又建立过“赤旗团”等早期共产主义团体。1930 年，朝鲜人先进分子参加中共珠河、穆棱、饶河、汤原、宁安等县委的组建工作。广大朝鲜人在各县委的领导下，参加了各种形式的反日斗争。朝鲜人始终把反对日本领事馆警察统治的斗争当作自己的使命，把日警及其亲日分子作为斗争目标和打击对象。1921 年 3 月 28 日，韩国独立团决死队员宋昌世等，在哈尔滨向当地朝鲜人会事务所投掷两枚炸弹，破坏该事务所，给该会员以轻伤。⁵² 1930 年 4 月 26 日，几名朝鲜人反日战士在延寿县柞木台子突然袭击了前来调查有关当地朝鲜人刑事案件的哈尔滨总领事馆警察署的日本人巡查部长小池和朝鲜人巡查宋宗镐一行，击毙了宋宗镐，击伤了小池。⁵³ 1930 年“五·一”国际劳动节，朝鲜族革命学生 40 多名用石头袭击驻哈尔滨日本总领事馆，砸碎了领事馆事务所、警察署、领事馆员宿舍的玻璃窗 80 多张。⁵⁴ “九·一八”事变以前，由于中共基层组织刚刚建立，加之日本领事馆警察机构尚未扩张到广大北满朝鲜人居住地区，因而朝鲜人反对日本领事馆警察统治的大规模的斗争并不多。

(2) “九·一八”事变以后：

南北满广大朝鲜人，在中国共产党的领导下，早就具有“反日除奸”的革命行动。早在 1930 年 8 月建立中共磐石县委时，已建立以朝鲜人将领李红光为队长、由七、八名朝鲜族反日人士组成的“特务队”。该特务队以反日除奸，保卫县委为己任，到处打击亲日走狗，故被称为“打狗队”。这种反日除奸，打击亲日走狗的斗争，“九·一八”事变后尤其通过其 1932 年的“2·9 斗争”、“4·3 斗争”、“5·1 及 5·7 斗争”形成了一个高潮。⁵⁵

1931 年 2 月 7 日，磐石县各族人民在中共磐石中心县委领导下，借“二·七惨案”纪念日，在郭家店等处召开反日除奸群众大会，揭露日警及其走狗团体“保民会”的罪行，并公开处决了一批日本走狗。2 月 9 日，磐石“保民会”会长朴春圃带领 60 多名伪骑兵到郭家店一带，逮捕 23 名反日群众（其中有中共磐东区委书记朴东焕等 9 名党团员），把他们押到郭家店伪军兵营内。对此，愤怒的 700 余名朝、汉群众奋起示威游行，将朴春圃等人的驻地伪兵营团团围住。入夜，人群似海，朴春圃等人慑于群众威力，不得不将被捕群众全部释放。这场斗争打掉了“保民会”的威风。

“2·7 斗争”及“2·9 斗争”的胜利，使日本领事馆警察系统恼羞成怒。4 月 3 日，吉林总领事馆警察署巡查部长松尾、磐石分署巡查本田、影泽等日本警察，由磐石

“保民会”副会长金汉钟带路，到二道岗挨户搜查 50 户朝鲜人，逮捕 9 名党团员和反日群众，并用马车拉着，直奔郭家店。在以朝鲜人革命家李东光为首的中共磐石区委的直接安排下，150 多名妇女、儿童和老人紧跟在马车后面，要求释放被捕群众，并高呼反日除奸的口号。妇女们拿起剪刀，剪断捆绑被捕群众的绳索。松尾命令伪军向群众开枪，但伪军在群众反日情绪的感召下，只朝天放枪。数名日警及其走狗见势不妙，便在群众的谩骂和追逐之中逃跑，被捕群众全部得救。

同年 5 月 1 日，中共磐石中心县委借“国际劳动节”，动员上千名反日群众，连续举行四、五天反日示威。示威队伍逮捕数十名当地亲日走狗，并召开群众大会，组织民众法庭，当场处决了一些罪大恶极的走狗。到 5 月 7 日，500 余名反日群众召开反日除奸大会，声讨日本侵略者及其走狗的罪行，然后去包围一家高姓日本走狗的家，没收其数十石粮食，分配给当地贫苦农民，再一次打击了日警及其走狗的气焰。⁵⁶

“九·一八”事变至 1932 年 1 月 13 日，共产党领导下的朝鲜人反日游击队在桦甸、磐石、永吉等县共处决了 14 名民愤极大朝鲜人民会会员⁵⁷。同年 5 月，在磐石处决了 20 余名最大恶极的民会会员。⁵⁸ 同年 9 月 17 日、10 月 21 日，在磐石县烟筒山和小柳河共处决了 29 名亲日走狗。⁵⁹ 还有，1933 年 6 月 1 日，朝鲜革命军总司令梁世奉（瑞凤）指挥第一中队第一小队的 20 余名，在通化西南第五区岗山二道沟龙凤村，击毙了朝鲜人民会会员 2 名，击伤 1 人。⁶⁰

在中国共产党的领导下，由东北各族人民的子弟所组成的东北人民革命军第一军、东北抗日联军第一军先后在南满，东北人民革命军第三、六军和东北抗联第四军、东北反日联合军第五军和东北抗联第五军先后在北满建立，同日本军警及其走狗部队、走狗团体进行了无数次的战斗。他们为消灭日本法西斯主义，为解放东北乃至全中国，做出了历史性贡献。

结 论

纵观朝鲜人反对日本领事馆警察的斗争，贯穿于整个日本领事馆警察统治期间的始终，成为朝鲜人反日斗争的一个重要内容。其斗争具有如下两个明显的特点。一是，不管“九·一八”事变以前还是以后，打击日警、亲日分子的活动成为朝鲜人打击日帝的最普遍的经常性的斗争形式。这是因为，平时日警、亲日分子、间谍、密探的活动，时时刻刻直接威胁着朝鲜人反日团体及其部队的生存。二是，在东北地区朝鲜人反对日警的斗争中，延边地区朝鲜人的反对日警的斗争最为突出。这是因为，第一，延边地处三国交界，系战略要地。日本侵略者为扩大在此地的“权益”，甚至为窃取对此地的实际控制权，早已派驻比其他任何地区更多的领事馆警察，疯狂地镇压和“统制”朝鲜人。所以，延边朝鲜人对于领事馆警察的激烈的反抗斗争，正是对于这种疯狂镇压的一种报复。第二，延边地区同朝鲜半岛隔江相望。不甘心做亡国奴的朝鲜人民早已迁入此地，使延边地区早已成为东北朝鲜人的最大聚居区。此后，朝鲜人在中国当局的同情、庇护、

默认之下，建立很多反日团体，开展各种形式的反日斗争，使延边地区成为朝鲜人反日斗争的策源地。结果，延边地区 20 世纪 10 年代为朝鲜民族主义反日团体的反日斗争策源地，20 年代为朝鲜人早期共产主义团体的反日斗争策源地，30 年代为中国共产党领导下的东满抗日游击根据地。

- 1 《外务省警察史》第 7 卷，[日]不二出版，1996 年，第 152—154 页。
- 2 《外务省警察史》第 19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55 页。
- 3 《外务省警察史》第 19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58 页。
- 4 《外务省警察史》第 26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319 页。
- 5 《外务省警察史》第 19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59 页。
- 6 《外务省警察史》第 10 卷，[日]不二出版，1997 年，第 28 页；《外务省警察史》第 11 卷，[日]不二出版，1997 年，第 9、330 页；《外务省警察史》第 12 卷，[日]不二出版，1997 年，第 12、68、201、263 页。
- 7 《外务省警察史》第 7 卷，[日]不二出版，1996 年 12 月，第 211、240—241、247—252 页。
- 8 《外务省警察史》第 19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203 页。
- 9 《外务省警察史》第 19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208 页。
- 10 《外务省警察史》第 21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25、126 页。
- 11 《外务省警察史》第 5 卷，[日]不二出版，1996 年，第 142、143、147、148、149、151 页。
- 12 《外务省警察史》第 5 卷，[日]不二出版，1996 年，第 142、143、147、148、149、151 页。
- 13 《外务省警察史》第 19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24—135 页。
- 14 《外务省警察史》第 20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73 页。
- 15 《外务省警察史》第 20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35 页。
- 16 《外务省警察史》第 20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37 页。
- 17 《外务省警察史》第 20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31 页。
- 18 《外务省警察史》第 20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50 页。
- 19 《外务省警察史》第 20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65 页。
- 20 《外务省警察史》第 20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64 页。
- 21 《外务省警察史》第 20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18—121 页。
- 22 《外务省警察史》第 20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27 页。
- 23 《外务省警察史》第 20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317 页。
- 24 《外务省警察史》第 23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3 页。
- 25 《外务省警察史》第 23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344 页。
- 26 《外务省警察史》第 24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19 页。
- 27 《外务省警察史》第 24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37、141 页。
- 28 参见《外务省警察史》[日]不二出版，1998 年，第 23 卷，第 86、152、237、290、315、381 页；《外务省警察史》第 24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52、236、249 页。
- 29 《外务省警察史》第 24 卷，第 23 页。
- 30 霍燎原等：《东北抗日联军第二军》，黑龙江人民出版社，1986 年，第 23—26 页。
- 31 霍燎原等：《东北抗日联军第二军》，黑龙江人民出版社，1986 年，第 23—26 页。
- 32 《外务省警察史》第 26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247、259 页。
- 33 《外务省警察史》第 26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12、141 页。
- 34 《外务省警察史》第 26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206 页。
- 35 《外务省警察史》第 26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35、39、40 页。
- 36 《外务省警察史》第 25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225 页。
- 37 《外务省警察史》第 25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235、251 页。
- 38 《外务省警察史》第 13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485 页。
- 39 《外务省警察史》第 13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486 页。
- 40 《外务省警察史》第 26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44 页。
- 41 《外务省警察史》第 26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46 页。
- 42 《外务省警察史》第 27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208 页。
- 43 《外务省警察史》第 9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399 页。
- 44 《外务省警察史》第 26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61、62、130、188、266 页。
- 45 《外务省警察史》第 26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70 页。
- 46 《外务省警察史》第 26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71 页。
- 47 《外务省警察史》第 8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39 页。
- 48 《外务省警察史》第 25 卷，[日]不二出版，1998 年，第 13 页。

-
- 49 《外务省警察史》第8卷，[日]不二出版，1998年，第130页。
- 50 《外务省警察史》第11卷，[日]不二出版，1998年，第217页。
- 51 《外务省警察史》第13卷，[日]不二出版，1998年，第338页。
- 52 《外务省警察史》第14卷，[日]不二出版，1998年，第335页。
- 53 《外务省警察史》第15卷，[日]不二出版，1998年，第77页。
- 54 《外务省警察史》第15卷，[日]不二出版，1998年，第83页。
- 55 孙继英等：《东北抗日联军第一军》，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第6—10页；《东北抗日联军斗争史》，人民出版社，1991年，第82—84页。
- 56 孙继英等：《东北抗日联军第一军》，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第6—10页。《东北抗日联军斗争史》，人民出版社，1991年，第82—84页。
- 57 《外务省警察史》第13卷，[日]不二出版，1998年，第338页。
- 58 《外务省警察史》第13卷，[日]不二出版，1998年，第344页。
- 59 《外务省警察史》第13卷，[日]不二出版，1998年，第366页。
- 60 《外务省警察史》第13卷，[日]不二出版，1998年，第294页。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활동에 대하여

한경림
(사회과학원 연구사)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력사의 갈피에는 전민족적인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서의 조국광복회가 빛나는 한페이지를 차지하고있다.

지구상에 정당, 단체들이 출현한 때로부터 그 연합체로서의 통일전선운동이 각이한 형태로 진행되어왔지만 애국애족이라는 하나의 리념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운 민족통일전선조직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국광복회의 창립과 활동과정을 통하여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실로 애국애족적이며 혁명적인 강유력한 통일전선의 참모습을 창조하였으며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단합된 억센 기상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오늘의 토론회에서는 전민족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활동에 대하여 3 가지 체계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1.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의 통일전선문제

일반적으로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는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문제로서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쟁취하여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며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그런것만큼 사회력사발전이나 혁명발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하여서는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 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통일전선문제를 옳바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는 통일전선문제는 특히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의 위업을 이룩해야 하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서 관건적문제로 제기된다.

돌이켜보면 19 세기말~20 세기초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넘어감에 따라 세계는 극소수의 제국주의열강들과 지구상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피압박민족들이 살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들의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식민지나라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열강들의 착취와 압박, 약탈과 전횡은 전례없이 강화되었다.

1880 년대에 영국, 프랑스, 에스빠냐 등 6 개의 자본주의열강에 예속된인구가 2억 5 천만명을 약간 초과했다면 1910 년대에 와서는 세계 총인구의 70%에 달하는 12억 5 천만명이상이 제국주의열강들의 예속밑에서 식민지적착취와 압박을 당하고있었다. 특히 19 세기말~20 세기초에 걸쳐 동방나라들은 세계제국주의열강들의 식민지로 분할되었으며 아시아대륙은 세계자본주의열강들의 원료원천지, 자본수출지,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 제국주의의 광대한 후방으로 전변되었다.

제국주의열강들의 동방에 대한 침략의 강화와 아시아나라들의 식민지, 반식민지화과정의 촉진은 이 지역에서의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을 국도로 첨예화시켰으며 한편 동방인민들을 새기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특히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10 월혁명의 승리는 동방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발전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10 월혁명의 영향에 의하여 그때까지 중세기적정책으로 하여 몽매해지고 자본주의문명의 거름으로만 되어온 동방인민들은 더욱 각성되었으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은 국제로동계급의 현명운동과 결합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중국에서 제국주의열강의 침략과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전인민적운동인 《5.4 운동》이 일어난데 이어 인디아, 월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해방투쟁이 급격히 양양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제의 10 여년간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반대하는 1919년 3.1 인민봉기가 일어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에 충격적인 타격을 주었다.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1920 년대말~1930 년다초에 더욱더 세차게 타번져져 폭력적형해로 발전하여 1929년 원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에 이어 1930년에 들어와서는 부산방직공장 로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서울, 평양, 대

구, 인천, 흥남, 청진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농민들의 투쟁도 고조되어 1929 년한해 동안만 하여도 전국각지에서 농민들이 수십차례에 걸쳐 소작쟁의를벌렸고 일제와 친일지주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광주학생들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학생들도 일제를 반대하여 동맹휴학과 시위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9~11 페이지)

이러한 사실들은 《잠자면 대륙》 으로 간주되던 아시아를 비롯한 식민지나라의 인민들이 세기적잠에서 깨어나 반계반식민주의투쟁, 민족해방투쟁에 광범히 일떠서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력사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로동계급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산 증거들이었다.

허나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타 나라 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올바른 리론과 로선이 없었던탓으로 하여 피의 결전을 벌리면서도 쓰라린 곡절과 절망적인 실패만을 거듭하였을뿐 성스러운 혁명의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당시까지의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내용을 보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또는 중등정도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행되는 사회주의혁명이나 다민족국가들에서 진행되는 부르췌아민주주의혁명에 대한 리론과 경험은 있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력사적조건에 처하여있는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리론이나 전략전 술은 없었다.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도 주로 혁명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리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그 력량들사이의 정치적연합에 관한 전술적문제로만 논의되어왔을뿐 식민지나라들에서의 사회계관관계에 기초한 력량편성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실천상에서 볼 때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10 월혁명이후 세계무대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 반식민지나라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급속히 양양되면서 혁명에 참가하는 대중의 범위가 비상이 넓어지고있던 새로운 환경과 조건은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관전적문제로 나서는 혁명력량편성문제, 통일전선문제를 새롭게 해결해나갈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있었다. 다시말하여 혁명에 절실한 리해관

제를 가지는 기본계급은 물론 중간 계급, 계층들을 비롯한 혁명에 참가할수 있는 모든 계급, 계층들과 당과들이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 전략적요구로 나섰다.

이렇듯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의 민족통일전선문제는 실천상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였지만 당시 리론실천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로 국제적으로 공인되고있었다.

그것은 당시 국제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1924 년에 실현되었던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이 1927 년에 장개석의 배신행위로 하여 실패한것을 리유로 통일전선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밀몰아 개량주의자로 규정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61 페이지)

실제로 세계적범위에서 통일전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게 된것은 1935 년 7~8 월에 진행된 국제당 제 7 차대회에서 반파쇼인민전선로선이 제시된 때부터였다.

도이쉴란드나치스의 정권탈취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은 프랑스로동계급은 자기 나라에서도 파시즘의 위협이 증대되어가고있는것을 보고 반제반파쇼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1934 년 7 월 공산당과 사회당이 반전, 반파쇼통일행동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당의 영향밑에 분리되어있던 토동조합이 통합되었으며 이런 흐름을 타고 《로동과 자유와 평화의 인민전선》이 결성되었다. 추세는 이 전선을 중산계급들과의 통일에로까지 확대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1935 년 5 월 좌익정당대표들의 회의에서 공산당이 반파쇼인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문제를 제의하고 좌익정당들이 이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1935 년 6 월말 사회당, 공산당의 연합에 소부르쥬아정당인 급진사회당이 가담함으로써 이른바 《인민집합》이 이룩되었다. 1936 년 1 월에는 이 당들을 중심으로 반전, 반파쇼투쟁에 떨쳐나선 전보적그루빠의 통일에 기초한 인민전선강령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그해 4~5 월에 진행된 하원총선거에서 인민전선이 압도적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인민전선내각이 서게 되었다. 물론 1936 년 6 월에 수립된 인민전선정부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못한것으로 하여 붕괴되고말았지만 이것은 프랑스에서의 로골적인 파쇼정권의 수립을 저지시켰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파쇼투쟁에서 하나의 유익한 경험으로 되었다.

국제공산당은 프랑스에서의 인민전선운동의 발전에서 좋은 시사를 받고 전세계공산주의자들앞에 인민전선결성을 중요한 투쟁목표로 제기하게되었다. 그리하여 유럽에서의 반전, 반파쇼인민전선운동은 국제당 제 7 차대회에서 반파쇼인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호소가 있은후 더욱 고조되고확대 되었다.(《김일성전집》 제 98 권 436 페이지)

1936 년 1 월 에스빠냐에서 공산당, 사회당, 공화당과 기타 민주주의정당들로 구성된 인민전선이 결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2 월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된것은 그 단적인 실패로 된다.[《조선대백과사전》(10) 427 페이지]

이렇듯 세계적범위에서 보면 큰 용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민족통일전선문제를 로선으로 제기할수가 없었던 때였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놓고보아도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의 민족통일전선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로동자, 농민을 제외한 다른 계층들과 동맹을 맺는것은 몽상이며 더우기 통일전선문제를 전략적문제로 제기하는것은 고전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비난하면 형편에서 민족통일전선문제를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략적문제로 제기한다는것은 엄두조차낼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첫 시도라고 볼수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던 신간회의 해산은 온 민족을 단합시킬 정도자를 모시지 못하고 옳바른 통일전선로선이 마련되지 못하면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심각한 역사적교훈으로 남기였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의 통일전선문제와 관련하여 따라배울만한 기성리론이나 경험, 실천적본보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자면 광범한 인민대중을 전취하여 그들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려야 한다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통일전선에 관한 사상을 새롭게 무르익혀나가지였으며 주체 19(1930)년 6 월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룬회의에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한마디로 반일의 기치밑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에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기준과 민족통일전선의 대상이 독창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각계각층 군중을 민족통일전선에 결속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은 반제애국사상이며 반제민족통일전선의 대상은 극소수의 반동세력을 제외한 지식인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종교인과 민족주의자는 물론 애국적인 지주들까지도 망라하는 광범한 반제세력이다.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에서 기본은 민족통일전선사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이며 여기서 중요한것은 혁명적군중로선과 계급로선을 옹계 결합시키는것이다.

이밖에도 민족통일전선로선에는 민족통일전선사업에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구체적특성에 맞게 능동적으로 벌리며 지하투쟁의 조건에 맞는 신축성있는 방법을 능란하게 적용함으로써 각이한 요구와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민족통일전선사업에 실질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 민족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는데서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통일을 이룩하며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고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통일전선의 형식과 방법에 관한 문제도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조선민족이 들고나아갈기치로 뚜렷이 명시해주심으로써 로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반대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 세력을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시켜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체를 타승하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는 독창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뿐만아니라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력량을 통일전선대상으로 하는 주체적인 혁명력량편성전략이 확정되게 되었다. 또한 지난 시기에는 주로 정당, 단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전례로 되고있던 통일전선이 그 어떤 합법적인 정당,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실현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견해가 확립되고 혁명의 일시적동반자에 관한 문제로만 간주되어오던 통일전선문제가 혁명의 항구적인 전략적문제로 독창적으로 밝혀

지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주체적인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사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됨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으로 혁명을 자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기에 1930 년대에 국제당에서 사업하고있었던 도이쉴란드사회통일당의 한 지도간부는 1932 년이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 큰 관심을 돌렸었다고 하면서 《1930 년대초기에 벌써 **김일성**동지께서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때 기초하여 처음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반제공동투쟁로선을 제시하신것은 당시 국제당에서 새로운 방침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하였다.(《자주 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8 사회과학출판사 59 페이지)

2.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1930 년대초부터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로선을 내세우고 그를 관찰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1936년 5월에는 드디어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다.》(《**김일성**전집》 중보관 제 3 권 98 페이지)

단결은 리념만 있으면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결코 아니다.

대중을 집결시킬수 있는 모체조직이 있어야 하고 핵심성원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울수 있고 단결된 힘으로 내세운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는것이다. 더우기 몇십몇백명도 아닌 온 민족을 하나의 통일전선에 묶어세우자면 반드시 온 민족의 대단결을 보장할수 있는 공고한 조직, 전민족적이며 통일적인 조직체가 있어야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전민족적이며 통일적인 조직체의 건설은 범민족적인 통일전선

체의 창립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호두회의가 소집되던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을 내오는것은 우리 혁명발건의 견지에서 보나 내외정세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일제가 온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준비를 서두르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정치적폭압과 경제적약탈을 전례없이 강화함으로써 민족적 및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고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은 광범한 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그러나 1930년대 전반기까지 아직 전국적성격을 가진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가 없다보니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분산성을 면할수 없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파쇼독재를 수립한 일본, 도이췌란트, 이탈리아의 독점자본가들이 모든 진보적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전쟁방화자로 등장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제국주의렬장들은 이 파시즘을 적극 고무추동하면서 노동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며 쏘련을 반대하는데로 그의 공격의 예봉을 돌리게 한것으로 하여 국제노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발전도상에는 심각한 위험이 조성되었다. (《조선전사》 19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25, 42 페이지)

모든 나라 혁명력량과 평화애호적인 민주주의력량앞에는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강화하여야 할 긴박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이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국제공산당 제 7 차대회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반파쇼인민전선운동과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할것을 국제적인 공통한로선으로 채택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하루빨리 실현할데 대한 국제적인 요구였다.

이와 함께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어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핵심이 마련되고 풍부한 경험과 튼튼한 토대가 쌓아졌으며 특히 새 사단의 탄생으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더욱 강화발전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실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결성의 주객관적인 조건들이 성숙되

였다는것을 말해주었다.

문제는 이러한 주객관적인 조건들을 옳게 분석하고 정확한 지도리론에기초하여 실현하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반일민족통일전선결성의주객관적인 조건들을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어 주체 25(1936)년 2 월에 소집된 남호두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어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 과업을 계시하시면서 전민족을 하나로 조직결속할수 있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이후부터 시작되여 주체 25(1936)년 3 월 하순에 있는 미혼진회의에서 구체화되었으며 그 준비사업이 완성됨에 따라 마침내 주체 25(1936)년 5 월 무송현 동강에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강화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조국광복회창립대회(동강회의)가 소집되였다. 5 월 1 일부터 15 일까지 진행된 회의에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국내각지의 독립운동자대표들, 천도교대표, 노동자, 농민, 교원대표들이 참가하였다.(《물세출의 위인 김일성동지》 2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 9(2010) 85~86 페이지)

회의가 소집된 동장은 무송진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 리떨어진 해발 1800m 나 되는 고원지대의 울창한 밀림속에 위치하고있었다.

동장회의에서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결성하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양으로 이끌어올리자》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으며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 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조국광복회규약》을 발표하시였다.

10 개조항으로 된 조국광복회강령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요구뿐만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대외적과업들을 가장 정확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본조항 8 개장 14 개조와 부칙 3 개조로 구성되어있는 조국광복회규약은 통일전선조직체의 명칭과 가입대상,

투쟁목적과 그 실현방도, 회원의 자격과 입회방법, 조직형식과 조직구조, 회원의 임무와 권리, 조직규율, 특수회원의 자격과 입회방법 및 공작임무를 밝히고 규약의 실행 및 수정절차를 체계정연하게 규제하였다. 그리고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그리고 대외적분야에 걸쳐 조국광복회강령을 5 개조항으로 집약화하고 구체화하여 우리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다시한번 밝혀주었다.

동강회의에서 채택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규약,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은 그 누구에게도 다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정치적주장을 완벽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전민족적반일애국력량을 조국광복전선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지도적지침이었다.

대회에서는 회의참가자들의 총의에 따라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위대한 수형님의 제의에 기초하여 조국광복회기관지를 발행하며 기관지제호자체를 온 민족이 떨쳐나 반일항전을 벌린 3.1 인민봉기의 정신을 담아 《3.1 월간》으로 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주체 25(1936)년 5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회장으로 모신 조국광복회의 창립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대중적이며 혁명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가 결성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그 회장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일본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주-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제동평>, <청년의용군>, <농민자위대>, <생산유격대>, <반일회>등의 외곽조직을 만들었으며 ...34년 조선인민혁명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해 35년(주-1936년임) 5월 5일 항일민족통일전선-조국광복회-라는것을 조직하고 그 회장으로 취임하였다.》(《정계왕래》, 1952년 10월, 87페이지)

조국광복회는 유일한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민주주의중앙질권제원칙에 기초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결속할수 있는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춘 포괄적이고 전일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동시에 탄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지하혁명 조직이었다.

조국광복회는 자기 산하에 현위원회, 구위원회, 지회, 분회 등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교있었다.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초기부터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이 안아온 고귀한 승리의 결정체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또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참으로 민족해방이라는 대전제를 첫 자리에 놓고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을 다 담을수 있는 큰 정치의 그릇, 범민족적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으로 발전시켜 조국해방의 날을 더욱 앞당길수 있게 되었다.

3. 조국광복회조직들의 활동

창립후 조국광복회는 조국해방이라는 민족공동의 대업을 이룩하는데서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우리의 민족해방투쟁의 목적과 과업을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해설하며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의 기치밑에 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을 조직동원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전집》 제 18 권 94 페이지)

조국광복회조직들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총집결시켜 거족적인 조국광복전선을 형성한것이다.

통일전선운동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공동의 목적실현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의 모든 력량을 최배한으로 묶어세워 투쟁에 인입하는것이다.

반제민족해방혁명이 당면과업으로 나선 당시 우리 혁명은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로 하여금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민족해방이라는 공동의 목적실현으로 총동원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조국광복회는 창립 첫날부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 때까지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불러일으키는것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제기하고 적극적인 대중전취활동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급속히 확대해나갔다.

조국광복회조직의 확대강화는 먼저 조국광복회창립직후 조선인민혁명군의 모

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조국광복회에 가입시키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인민혁명군조직편제에 따라 소대에 분회, 중대에 지회를 두고련대와 사단, 독립려단에는 각각 위원회가 조직되었다.(《항일무장투쟁사》 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제 93(2004) 248 페이지)

이것은 조국광복회조직을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급속히 확대하는데서 조선인민혁명의 선도적이며 주도적역할을 높여나갈수 있게 한 역사적사변으로 되었다.

그후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에 의하여 활발히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국내와 만주의 넓은 지역에 파견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조선인민혁명군 지위관들인 김주현, 권영벽, 지래환, 박록금동지를 비롯한 정치공작원들은 대중속에서 들어가 그들과 접촉하면서 먼저 핵심들을 료해장악하고 그들속에 조국광복회 10 대강령과 창립선언의 내용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선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거족적인 반일항쟁에로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당시 북만에서 활동하던 김책은 《조국광복회 10 대강령》을 입수하자 그 강령을 한자한자 목판에 새겨가지고 수백부나 찍어내어 북만의 항일련군부대들과 각 현의 지방혁명조직들에 배포하였으며 여러차례의 회의들을 통하여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고 그 조직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김일성전집》 제 100 권 68 페이지)

조국광복회 기관지 《3.1 월간》도 큰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3.1 월간》은 창간 첫호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조국광복회 10 대강령》을 해설선전하는데 힘을 집중하였으며 전기간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고무추동하였다. 하여 《3.1 월간》은 조선인민혁명군부대와 장백지구는 물론 국내의 광범한 지역에까지 보급침투되어 각계각층 군중속에서 널리 애독되었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역사적인 보천보전투,

무산지구진공전투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의 생동한 사실과도 결부하여 대중정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와 등해안일대의 조국광복회조직들만 보더라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 나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그 어느 나라의 병서나 명장들의 전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신묘한 전술과 전법을 쓰신다고 하면서 그렇기때문에 왜놈들이 아무리 좋은 병기를 가지고 수백수천명씩 달려들어도 천변만화하는 장군님의 전법에 혼비백산하여 맥을 추지 못하고 전멸되고만다는 내용의 선전을 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민대중의 존경과 흠모, 신뢰는 날로 두터워졌고 민심은 전적으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으로만 쏠리게 되었다.

당시 일제의 국정경찰관이었던 한 일본인은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있다.

《돌이켜보면 당시 조선인민의 독립열망은 대단히 높았다. 그들은 백두산과 만주일대에서 항일전을 과감히 벌리시는 **김일성**장군님께 모든 기배를 걸고있었으며 그이를 마음속으로부터 경모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은 말그대로 <조선독립대장>이시였으며 그분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인민은 물론 우리 <특수공작반>의 경우에도 모든 화제의 중심으로 되었다. ...

김일성장군님의 명성은 일본군대안의 조선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며 그분의 영향력은 해빛처럼 조선인들의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1940 년대에 이르러 일본군대안의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김일성**장군님 휘하의 항일유격배에 참군할 것을 기도한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실로 **김일성**장군님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구세주>였으며 말그대로 <조선독립대장>이시였다.》 (《시비》 시대사 1985년 8월호 19~21 페이지)

조국광복회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은 급속히 높아져 조선의 해방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사상, 무장한 원썬들과는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사상, 조선인민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자면 계급, 성별, 연령, 당파,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일치단결해야 하며 전세계 피압

박인민들과 연합하여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는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었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대중의 반일의를 높이는 한편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되고 실천을 통하여 검열된 사람들을 대렬에 망라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을 늘려나갔다. 그리고 회원이 3명이상이 되면 분회를, 분회가 3개이상이면 지회를 꾸리었으며 지회가 3개이상이면 구회를 꾸리었다. 조국광복회 현조직은 여러개의 구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것이였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적의 군대와 경찰기관, 관공서에도 꾸리게 하였는데 적기관들에 복무하면서 지하혁명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는 조국광복회 특수회원들이라고 하였다. 이런 특수회원들은 일본지도관들의 감시가 살별한 정안군내에도 있었다.

조국광복회조직전설운동은 장백을 비롯한 서간도와 만주땅에서 먼저 활발히 벌어졌는데 권영벽, 리제순동지들에 의해 주체 25(1936)년 10월에 장백현 20도에 신흥촌지회가 나오고 그 산하에 분회들이 조직된것을 비롯하여 압록강연안의 장백일대에 수많은 조국광복회조직들이 나오고 주체 26(1987)년 2월에 조국광복회 장백현 상장구위원회와 하강구위원회가, 이해 봄에는 중강구위원회가 조직된데 이어 이해 2월 10일 리제순동지를 책임자로 하는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장백일대에 정연한 조국광복회조직망이 형성되게 되었다.(《항일무장투쟁사》 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93(2004) 273~285 페이지)

조국광복회조직전설운동은 국내의 넓은 지역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국내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전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적령도가 가장 손쉽게 미칠수 있는 북부국정지대의 압록강연안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내 중심깊이 확대하는 방향에서 진척되였는데 이 사업의 주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갑산과 삼수, 풍산지구였다. 이 지구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지역상으로 가까왔을뿐아니라 거기에는 국내 여러곳에서 모여온 형형색색의 운동자들과 선각자들, 서간도지방에 친척, 친우, 친지들을 둔 연고자들이 많았다.

하여 주체 26(1937)년 1월 갑산일대에서 활동하면 박달동지를 비롯한 국내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인 갑산공작위원회가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되고 그 산하에 여리가지 이름을 가진 수십개의 하부조직들을 꾸리었으며 삼수, 풍산지구에도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 원인 최경화와 박인진, 리창선, 리경운을 비롯한 천도교제통의 인물들에 의해 조국광복회 광생리지회, 풍산지회가

조직되었다.

압록강연안과 개마고원일대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점차 동해안일대의 도시들과 농촌지역을 거쳐 신의주, 양덕, 덕천, 평양, 해주, 벽성, 서울, 대구, 부산 등 서선지방과 중부 및 남부조선일대로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오까야마를 비롯하여 일본 도쿄와 교토, 오사카, 홋카이도에도 조국광복회조직들이 결성되었다.(《김일성전집》 제 100 원 70 권 81 페이지)

그리고 로동조합과 농민조합을 혁명적인 대중조직으로, 조국광복회조직으로 개편하는 사업과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일지주, 예속자본가들을 제외한 모든 계급과 계층들을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하나의 항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졌다. (《항일무장투쟁사》 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제 93(2004) 135 페이지)

이와같이 민심은 천심이라고 나라의 독립뿐만아니라 인민의 나라를 세울것을 목표로 내세운것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폭폭같은 지지찬동을 받은 조국광복회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소상인들만 아니라 천도교단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박인진도정을 비롯한 천도교인들과 윤일파, 최윤구를 비롯하여 한때 영향력있던 독립운동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김정부와 같은 지주들과 민족자본가들, 면장과 같은 적기관복무자들도 그 회원으로, 적극적인 지지자, 동조자로 되었다.

1942 년에 일제가 저들이 탐지해낸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 여개나 되고 조직적력량이 50 만이 넘는다고 비명을 올린것자체가 조국광복회조직의 위력을 알수 있게 하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실로 20 여만의 회원을 가지고 그 산하에 수십수백만의 각계층 군중을 망라한 조국광복회는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반일력량으로 결속하는데서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불세출의 위인 김일성동지》 2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제 99(2010) 90 페이지)

조국광복회 조직들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주력으로 하는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데 모든 힘을 다한것이다.

전국각지에 뻗어나간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조국해방의 기치밑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민족해방위업에 조직동원하는데서 실로 거대한 공헌을 하였

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국해방의 주력을 담당한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데로 각계층의 광범한 군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한것이다.

사실 조선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의 중심활동거점인 백두산을 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는것은 인민혁명군으로 하여금 일제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군사정치활동을 과감히 전개할수 있게 할뿐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들을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서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길이였다.

이로부터 조국광복회 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원호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조국광복회 조직들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승리를 축하하는 환영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모임들과 위문편지, 위문공연 등을 통한 지지성원활동과 인적 및 물질적지원사업, 적정자료통보와 적군외해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적극 원호하였다.

주체 26(1937)년 6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장백현 19도구 지양개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의 빛나는 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때 장백천과 국내 조국광복회 조직들에서 파견된 대표들은 국내진공작전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조국광복회 장백현 신흥촌지회에서는 반일부녀회와 반일청년동맹의 명의로 각각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에 축기를 만들어보내고 기념촬영과 경축식사모임도 조직하여 인민혁명군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당시를 회상하여 19도구의 조국광복회 조직성원이었던 한 일군은 다음과 같이 었다.

《19도구조직에서는 그들 전체성원들에게 국수를 대접할것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집집을 돌아다니며 인민들이 저마다 보관하여두었던 100여말의 전분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수백명에 달하는 용사들에게 일시에 국수를 대접하자니 국수들이 모자랐다. 우리는 산에 가서 피나무를 베여다가 분통을 깎고 석유통을 두드려 펴서 구멍을 뚫어 그것으로 수십개의 국수분들을 단하루사이에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더삼촌산속에서 진행된 이 역사적인 련환대회 참가자들에게 19

도구인민들의 지성어린 국수를 대접할수 있었던 것이다.》(《조국광복회운동사》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21~322 페이지)

당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인적, 물질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은 항일혁명전쟁이 국가적후방도 정규무력의 지원도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되는만큼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당시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사이의 련계를 끊을 목적으로 집단부락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수많은 청장년들을 전쟁터와 공사장들에 끌어갔으며 한되박의 쌀, 한홉의 소금, 한치의 천이라도 인민혁명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리고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조선인민혁명군에 보내는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현장에서 무참히 학살하였고 혁명군과 련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마을을 불지르는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조국광복회운동사》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23 페이지)

이러한 형편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지원사업은 말그대로 희생을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였으며 몇몇 사람이나 한두동네의 힘만으로는 많은 물자를 마련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조국광복회 조직들은 장백지구와 북부조선 국경지대는 물론 국내중심깊이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로 하여금 인민혁명군에 대한 원호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조국광복회 갑산지회에서는 원래 천도교인들이 바치는 성미를 천도교중앙에 올력보내군 하였는데 1930 년대 후반기부터는 그 성미를 조직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에 보내였으며 주체 25(1936)년 9 월부터 주체 26(1937)년 6 월까지의 열달동안에만도 장백현 도천리, 지양개, 신흥촌 3 개 마을에서는 쌀, 밀가루, 감자가루 각각 수백말, 지하족 900 여켤레, 광목 950 여 m, 양복 300 여벌, 솜버선 200 여켤레를 비롯하여 많은 의약품, 문방구, 필수품들을 조선인민혁명군에 보내주었다.(《조국광복회운동사》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24~327 페이지)

조국광복회원들은 백두산에서 1 000 리이상이나 멀리 떨어져있는 서울에서도 혁명군의 활동에 필요한 후방물자를 구해서 보내주었다.

조국광복회 북청조직의 한 성원이었던 전조협은 북청군 속후 《삐오네르사건》에 관계한 《죄》로 형무소에서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인데 주체 26(1937)년이후부터는 조직의 위임에 따라 서울에 가서 지하공작을 하였다.

그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공작을 벌리면서 한편으로는 유격대지원을 위한 모금사업으로 물지게장사를 시작하였다. 원래 북청사람들은 물지게장사를 하여 서울공부를 하는 자식들의 학비를 대주는것으로 유명하였다. 전조협에게는 서울공부를 시킬만 한 자식이 없었지만 희명을 위하여 물지게를 지었다.

그는 물지게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천, 신발, 백로지, 의약품, 등사잉크를 비롯한 원군물자들을 마련하고 조직선을 통하여 인민혁명군에 보내주곤 하였다.

이 과정에 한 가게방집 딸이 약혼선물로 받은 녀자용금시계를 주인에게 찾아 준것을 계기로 그 집사람들에 좋은 영향을 주어 원군운동에 참여하게 하였다.(《김일성전집》 제 100 권 83~84 페이지)

이렇듯 조국광복회 조직들에서 회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조직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보낸 지원물자는 식량, 천, 신발, 소금, 성냥, 의약품을 비롯하여 수십가지에 달하고 그 수량 또한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지지성원하는 인민들의 조직된 힘이 얼마나 크고 그 신심이 얼마나 확고했는가 하는것은 당시 적들자신이 실토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1937 년 국경일대를 돌아치던 함경남도 경찰부장이란 자는 장백현일대의 인민들이 조선인민혁명군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를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는데 질겁하여 인민들의 집을 모조리 불태우고 그들을 모두 집단부락에 넣으라고 호통치였다.(《조국광복회운동사》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27~328 페이지)

또한 전 관동군소속 《선무공작반》 반원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 《토벌》에 가담하였던 한 일본인은 《우리는 <빨찌산부대만 없애면 조선사람은 [황국신민] 으로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 당신들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를 협력하라.> 고 선전했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조선사람들은 은밀하게 항일빨찌산부대에 피복이나 식량,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등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지원을 하고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제탄에는 선전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도 실지로 우리를 도와나서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고 자기가 목격한 바를 회상하였다.(《신출귀몰한 항일유격대》 시대사 1975 년 82 페이지)

조국광복회 조직들이 수많은 애국적인 청장년들을 인민혁명군에 보낸것은 국가적인 대렬보증체계가 없던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지

원이었다.

이에 대하여 조국광복회기관지 《3.1 월간》 창간호는 《민족해방전선의 확대, 피끓는 청년애국용사들이 김일성장군부대에 속속가입》이란 제목의 글에서 …압록강, 두만강 연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정의의 총성, 해방의 함성, 이는 우리 조국에 있는 피끓는 청년들과 애국용사들의 전투적기세를 격동시키고있는것이 아닌가!

조국 서북부 각지의 피끓는 청년애국용사들은 때를 지어 매일 7~8 명씩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김일성장군부대에 가입하고있다. 그후부터 만 1 개월간에 증가된 반일신전사는 90 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조선국내의 지형과 도로 및 각지의 정형을 잘 알기때문에 무장대오의 앞장에 서서국내 출입의 선두에 설것을 지원하였다.

왜적들은 비상히 공포를 느끼면서 국정정비에 죽을 힘을 다하고있다고한다.》라고 썼다. (《조국광복회운동사》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29~330 페이지)

조국광복회 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군사정치활동을 직접 돕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조직진행하였다.

당시 적기관인 군대, 경찰, 자위단, 협화회에 들어간 조국광복회 회원들은 특수분회들을 못하고 활동하면서 자위단 단장, 협화회 회장, 구장 등 합법적지위를 리용하여 수많은 적정자료를 인민혁명군에 제공하였으며 적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속여넘기고 인민혁명군의 전투승리를 직접 돕기도 하였다.

주체 25(1937)년 6 월에 진행된 보천보전투와 간삼봉전투는 바로 조국광복회 조직성원들이 수집한 적정자료에 의거하여 진행된것이였으며 조국광복회조직성원으로서 12 도구 구장으로 공작하면 최병락동지는 간삼봉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함흥 제 74 련대의 200 명가량 되는 패잔병들을 《길안내》하여 인민혁명군으로 하여금 12 도구뒤골안에서 소멸케 하였다. (《조국광복회운동사》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32 페이지)

이처럼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조국광복회조직들의 정신적 및 물질적, 군사적지원은 국가적후방도 정규무력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장기간 승리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과 최후공격작전에 배합하여 전체 조선인민을 반일반전투쟁과 전민항전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

였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반일반전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며 항일무장투쟁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었다.

이로부터 조국광복회 국내조직들은 삼천리방방곡곡에서 태업, 파업, 시위, 폭동, 소작쟁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일제의 강도적수탈을 반대하는 투쟁, 일제의 《황민화》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 일제의 대륙침략과 전쟁정책수행에 타격을 주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조직지도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적의 통치기능을 마비시키며 적통치기관들을 습격파괴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파쇼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면서 특히 북부국경일대와 장백지구에 폭압망을 조밀하게 늘어놓았는데 인구가 4만 6000명밖에 안되는 장백현에만 하여도 5개의 경찰서와 53개의 경찰분서를 두고도 안심되지 않아 신선대, 특별공작대, 산림경찰대, 자위단 등을 두었으며 헌병대와 수많은 《토벌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에 미쳐날뛰면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로부터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정치공작원들과 조국광복회성원들을 적기관 및 단체안에 침투시키거나 적기관의 일정한 직위에 있는 인물들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적통치기능을 마비시키도록 하였다.

하여 장백현 19도구에서는 면장의 자리에, 20도구 신흥촌에서는 촌장의 자리에, 도천리에서는 구장의 자리를 차지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곳의 구장, 촌장, 십가장의 자리를 조국광복회 회원들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적의 경찰, 협화회, 자위단, 세관 등의 책임적인 자리에도 침투하였다. (《조국광복회운동사》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35~336 페이지)

백두산주변의 넓은 지역에서 적 기관 및 단체들이 혁명조직들에 의하여 장악됨으로써 이 일대에서 적의 통치기능은 마비상태에 빠지고 적들의여러가지 반동적인 시책들은 파탄되거나 혁명투쟁에 역이용되게 되었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사이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벌린 집단부락설치책동을 반대하는 투쟁도 적극 벌려 적들의 통치기능을 마비시키었다.

조국광복회 조직들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일제의 집단부락설치책동의 진의도를 발가놓으면서 대중을 각성시키는 일대 정치공세를 벌려였으며 광범한 인민들이 집단부락건설공사를 태공하고 가을걷이에 나가도록 추동하는것과 함께 집단부락축성물을 파괴해버리는 투쟁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적들의 집단부락설치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파탄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하는 등 혼란을 조성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일제의 강알에 의해 집단부락이 설치된 다음에는 그안의 존장, 자위단 단장, 협화회 회장 등을 조직성원들이 차지하여 활동하게 하였으며 자위단에 생산유격대를 들여보내여 무장으로 혁명조직과 혁명군을 보위하도록 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적의 통치기능을 마비시킬뿐아니라 적통치기관들을 직접 습격파괴하는 투쟁도 힘있게 벌리었는데 주체 26(1937)년 5 월 함경남도 갑산군(량강도 갑산군) 강구리에서 조국광복회조직성원들이 폭탄을 만들어 일제의 경찰기관을 습격한것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일제기관들을 습격하는 전투가 벌어졌다. (《조국광복회운동사》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37~340 페이지)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조국광복회 조직들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어졌다.

조국광복회 조직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6(1937)년 9 월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신 호소문과 주체 28(1939)년 6 월 국사봉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을 깊이 해설하는것과 함께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책동의 반동적본질과 조선인민에 대한 파쏘적폭압과 략탈의 야수성, 잔인성을 날날이 발가놓으면서 인민들을 놈들의 침략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을 비롯하여 함경남북도과 평안남북도, 강원도와 황해도, 경기도와 경상남북도 등 전국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일반전투행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여기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수공업자, 량심적인 중소기업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애국적인민들이 광범히 참가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의 지도밑에 애국적인민들은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의 침략성과 전쟁에서의 패망상을 폭로하는 사회적여론도 널리 튜포시켜 일제침략군을

동요시키고 놈들의 전쟁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적들은 조선사람들은 《이번 전쟁에서 사망한 일본놈들의 모가지를 기차 두차량이나 실어다가 제사를 지낸다. ...일본놈들은 만사가 다 되었다.》(《사상회보》 제 14 호, 고등법원 점사극 사상부, 1938 년 3 월, 81~90 페이지)는 등반전적, 반국가적언동을 계속 널리 퍼뜨리고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의 지도밑에 인민들은 평양, 무산, 성진(김책), 청진, 함흥, 흥남, 원산, 신의주, 남포, 경성(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곳에서 일제의 전시생산과 수송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었다.(《항일무장투쟁사》 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제 94(2005) 268 페이지)

풍산지구의 수전공사장로동자들은 조국광복회 풍산지구혁명위원회의 지도밑에 일제가 벌려놓은 수전공사를 지연파탄시키기 위하여 주제 30(1941)년에만도 여러차례의 파업투쟁을 벌렸으며 주제 30(1941)년 11 월 고성군 조선유지공장 로동자들은 장전반일회의 지도밑에 일제와 악질적인 일본인감독의 악랄한 행위를 반대하여 《대우를 개선하라!), 《임금을 인상하라!), 《로동보호조건을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200 여의 정어리기름을 불태워버리고 악질적인 일본인감독을 처단하면서 3 일간이나 맹렬한 파업을 단행하였다.(《항일무장투쟁사》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제 94(2005) 447 페이지)

일제의 전시생산을 반대하기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은 폭동적형태로도 전개되었는데 주제 31(1942)년 5.1 절을 계기로 하여 일어난 평안북도 동방광산 로동자들의 대중적인 폭동, 주제 32(1943)년 6 월 명천광산 로동자들의 폭동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중요군수공장, 제철소, 제장소, 탄광, 광산, 항만, 철도 등 각 부문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항일무장투쟁사》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제 94(2005) 450~451 페이지)

로동자들의 완강한 목력적진출에 의하여 일제는 《이들 로부자중에 있어서는 각종 분쟁의 빈발 특히 ...집단적폭력사건의 빈발 혹은 도주사건이 빈번한 증가의 경향을 보여 결전하의 생산천력증강상 한심하기 짝이 없는바 있다.》(《고등외사월보》 51 호, 조선총독부 정무국 보안과 1944 년 69 페이지)라고 비명을 질렀다.

로동자들은 일제의 전시군수생산과 수송을 지연, 파탄시키기 위하여 태업투쟁도 힘있게 벌리었는데 문평제련소 로동자들은 초기에는 임금인상과 대우개선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개별적으로 투쟁하다가 점차 집단적인 태업을 벌렸으며

나중에는 수많은 숙련노동자들이 다른데로 일자리를 옮겨감으로써 일제의 전시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일제의 전시생산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은 생산설비들을 파괴 또는 오조작하여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진행되었다.

일제의 주요군수공장의 하나였던 평양병기공장 노동자들이 기계부속품을 빼버리거나 설비를 파괴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려 무기와 탄약을 비롯한 군수생산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일철노동자들이 주체 32(1943)년 6월 파괴되어 정지상태에 있던 2호용광로 안불입벽들을 다시 폭파하는 방법으로 재차 파괴함으로써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선철을 생산할수 없게 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노동자들은 또한 일제의 군수물자수송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었는데 일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42년 한해동안 황해도일대에서만도 군수렬차의 충돌 및 전복과 같은 중요사건이 무려 46건이나 일어났다. (《항일무장투쟁사》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제 94(2005) 452~455 페이지)

이렇듯 인민대중의 반전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조국광복회 조직들은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을 일제의 경제적략탈과 민족문화말살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이 시기 일제침략자들은 《전시생산》이란 간판밑에 노동자들에게 장시간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는데 일제가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7년의 로동시간은 놈들이 조사한 대상가운데서 12시간이상 되는 공장수가 41%였고 군수공장들에서는 보통 14~16시간이었으며 1938년 이후에는 그것이 더욱 연장되었다.

하여 노동자들은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매우 낮은 임금마저도 몇달씩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장 힘들고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일본인노동자들에 비하여 극히보잘것없는 임금을 받아야만 하였다.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도 1930년대말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는데 일제는 《동조동근》이니, 《내선일체》니 하는 강도적인 《리론》을 퍼뜨리면서 우리 말과 글, 민족문화와 유구한 력사, 미풍량속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우수한 모든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우리 인민을 저들의 영구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획책하였다. (《조국광복회운동사》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204~205, 214 페이지)

조국광복회 조직들은 이로부터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가슴속에 민족적 및 계급적반항심을 불어일으키는 한편 일제의 경제적략탈과 가혹한 식민지적착취, 민족문화말살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힘있게 불어일으켰다.

그리하여 주제 26(1987)년 9 월 흥남제련소 노동자들의 파업, 같은해 10 월 본공화학공장 소다직장건설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과 태업투쟁이 련이어 벌어졌고 주제 25(1936)년 9 월 평안북도 룡천군 불이 농장 1 만여명의 농민들의 소작쟁의를 비롯하여 악질지주들을 반대하고 3.7 제를 쟁취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항일무장투쟁사》 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제 9(2004) 15 지, 《조국광복회운동사》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51 페이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고 민족교육의 실시와 우리 나라 말과 글을 되찾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지식인들의 대중적투쟁도 도처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이렇듯 조국광복회 조직들이 직접 조직하였거나 그 영향하에 전개된 인민들의 이 모든 반일대중투쟁들은 조선을 저들의 《병참기지》로, 《공고한 후방공급기지》로 만들려던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대륙침략정책의 파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의 팔동에서 특히 주목할것은 일제를 격멸소탕하기 위한 전민항전준비와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배합한 무장봉기에도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 동원한것이다.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봉기조직들을 확대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광복회조직들은 도처에 생산유격대, 노동자돌격대와 같은 무장봉기조직들을 내오고 조직생활과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핵심들을 선발하여 무장봉기조직들에 받아들였다. 또한 일제의 《징병》, 《징용》을 기피하여 산속에 숨어있는 애국적인 청장년들도 무장봉기조직에 받아들였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비밀거점들을 꾸려놓고 생산유격대, 노동자돌격대 대원들을 집체적으로 생활시키면서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한편 실지 적과의 싸움에 필요한 군사지식과 튼튼한 육체적준비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강화하였

다.

군사훈련은 주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성원들과 간백산밀영에서 강습을 받고 각지에 파견된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성원들이 지도하였다.

군사훈련에서는 대렬동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보총, 권총, 기관총의 제원, 사격원리와 방법, 보관관리와 고장되치법 등을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맹렬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적의 무기를 빼앗는 훈련도 진행되었다. 무기탈취훈련은 길가에 매복하였다가 적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탈취하는 방법, 경찰서 등 적기관을 습격하여 탈취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실감있게 진행되었다. 또한 적의 중요대상들에 대한 경찰방법, 적을 체포하는 방법, 철도, 교량, 도로에 대한 지뢰매설과 폭과방법, 각이한 지형조건에서의 방위관정방법 등 실지 싸움에 필요한 훈련이 실속있게 진행되었다.

하여 조국광복회조직인 흥원농민조합에서는 산하조직들에 생산유격대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주체 28(1939)년 6월말에 이르러 군안의 거의 모든 면들에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였다.(《항일무장투쟁사》 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94(2005) 258~260 페이지)

그리고 조국광복회 신의주운송주식회사 지회에서는 주체 32(1943)년봄 평안북도 철산군 철산면 월봉동(켈산군 월봉리)에서 무장봉기조직인 철산애국단을 조직하고 신의주, 철산, 다사도, 정주, 남시 등 여러개의 지구별소조들을 내왔으며 불과 몇개월사이에 그 대렬을 수십명으로 확대하였다.(《항일무장투쟁사》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94(2005) 365 페이지)

이처럼 전민항전에 쫓겨난 조국광복회조직들과 비밀결사는 일제경찰의 비밀문건에 의하더라도 1942년에 183개나 있었으며 비밀이 보존된 조직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의 지도밑에 북부조선일대의 주요 공장, 제조소 노동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과 배합하여 무장폭동으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나갔으며 평양철도부문 노동자들도 자체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인민혁명군에 합세하려고 하였다.

강원도(현재 경상북도) 울진군과 경상북도 대구에서는 청년학생들이 **김일성**

장군님 부대와외의 연계밑에 무장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있었으며 경상남도 진해에서는 일본해군부대에 강제로 끌려간 해병들이 비밀결사를 맺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인민혁명군에 참군하려고 하였다.

1942-1944 년기간에 일제의 경찰문건자료에 의하더라도 인민혁명군과 연계를 맺고 무장봉기를 일으키려던 사건이 30 여건이나 된다.

이처럼 전민항전준비를 위한 조국광복회조직들의 활동은 1940 년대 전반기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가까와옴에 따라 더욱 적극화되었으며 주체 34(1945)년 8 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배합한 조국해방작전에서 그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과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무장봉기조직들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합세하여 전국각지에서 일제 침략군과 헌병, 경찰기관들을 습격소탕하여 적의 배후를 교란하고 적들을 혼란과 수세에 몰아넣기 위한 전투활동을 과감히 벌리었다.

회령일대에 집결되어있는 일제침략군무력과 헌병, 경찰들을 소탕하는투쟁은 주로 정치공작원들의 지도밑에 이미부터 배후련합작전을 준비하여온 까치봉무장대와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들에 의하여 벌어졌으며 조국광복회 신의주운송주식회사 지회의 지도밑에 산하무장조직들인 영림서무장대와 북하동무장대들은 신의주 일대에 집결되어있는 일제침략군과 헌병, 경찰기관들을 습격소탕하기 위한 활동을 맹렬히 벌리었다.

그리고 순천일대에서 활동하던 조국광복회조직적인 일심청년회와 자모독립단은 무장대성원들과 함께 8 월 13 일 평양으로 통하는 도로의 량쪽에 무장대의 기본력량을 매복시킨 다음 무장대의 불의적인 습격을 받고 평양쪽으로 도망치려던 적들에게 일제히 집중사격을 들이대고 수류탄세례를 안기었다. 다음날에는 군정찰서와 군안의 여러 면들에 있는 정찰관주재소들에 대한 습격전투를 진행하여 모두 점거하였다.

적의 배후를 교란하며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관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은 부산, 광주, 전주, 대구, 진주 등 남부조선의 여러 지역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과 당 및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혁명조직,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무장봉기조직들은 적배후교란전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인민들을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항쟁의 마당에 적극

불러일으켰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무한히 고무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은 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들의 지도밑에 전국 도처에서 대중적인 반일폭동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일제침략군 병영, 헌병, 경찰기관들과 식민지통치기관들을 습격하여 일제군경들과 관리들을 정벌하였으며 형무소들을 습격하여 부당하게 감금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석방하였다. 또한 《신사》, 《봉안전》 등을 불사르거나 짓부시고 공장, 철도, 우편국 등을 장악하여 일제의 군수생산과 수송, 통신망들을 마비시켰다.

일본에 장제로 끌려간 조선인들도 여러 지역에 꾸려진 조국광복회와 전민항쟁조직들의 지도밑에 일제의 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그들은 공장과 광산, 탄광, 농촌들에서 태업과 파업, 집단도주 등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일제의 군수생산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적들을 전멸케 하였다.

이처럼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진 조국광복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그 지도밑에 벌어진 무장봉기조직들의 정치군사활동, 인민들의 격렬한 대중적폭동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앞에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항일무장투쟁사》 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24~135 페이지)

이처럼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패망과 조국광복의 민족사적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촉진하는 거대한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국광복회가 이룩한 업적과 경험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혁명적유산으로 되었다.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창설 및 평가

최봉춘
(항주사범대학)

목차

I 서론

II 중국 관내지역 조선공산주의운동

1. 상해 초기 조선공산주의자그룹
2. 1930년대 관내지역 좌익조선청년그룹
3. 조선의용대의 성립

III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조직체계

1. 화북조선청년연합회와 조선의용대
2.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IV 평가

I 서론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화북지대는 항일전쟁시기에 조선인(한인)들이 중국 화북지역에서 창설한 대중정치조직이자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유일한 조선혁명무장단체로서 그 근본 취지는 중국 항일전쟁을 지원하고 팔로군·신사군과 협력하여 일본군과 싸우며 최종적으로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우선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화북지대에 대한 초기 연구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중국:

1980년대 초부터 조선민족독립운동에 관한 글이 중국의 신문과 전문 서적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에 잔류했던 많은 고참 대원들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며 비정기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한글판 조선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 관련 연구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현룡순(玄龍順)·리정문(李政文)·허룡구(許龍九) 편, 『조선족백년사화』, 료녕민족출판사, 제 1 집(1982), 제 2 집(1984), 제 3 집(1985).
- (2) 박창욱(朴昌昱) 주편, 『조선족혁명열사전』 제 1 집(1983), 제 2 집(1986), 제 3 집(1992), 료녕민족출판사.
- (3) 김학철(金學鐵) 전기문학, 『항전별곡』, 흑룡강민족출판사, 1984.
- (4) 혁명회고록, 『리홍광시대』, 료녕민족출판사, 1985.
- (5) 이희일(李羲一)·서명훈(徐明勛) 주편, 『조선의용군 3 지대』, 흑룡강민족출판사, 1987.
- (6) 『조선의용군발자취』 편찬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연변인민출판사, 1987.

이외에 『주덕해의 인생』(연변인민출판사, 1986), 『작곡가 정률성』(료녕민족출판사, 1986) 등 단행본도 이맘때 발간됐다. 이상 저작들은 대부분 중국 개혁개방 초기 조선의용군 대원들의 진실한 회고록으로 중국 내 조선민족독립운동 관련 제 1 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실제로는 1946 년 1 월 서울 『新天地』 잡지에 '독립동맹특집'이 게재된 이후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역사가 한국에서 한때 널리 퍼졌다. 그 후 냉전 시기에 한반도에서 중대한 역사사건이 발생해 연안파 (즉 조선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의 역사가 점차 인멸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멀리했다.

냉전 시기 한반도 남북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첨예하게 갈등했지만 한국학계는 연안파에 대한 역사를 숨기지 않았다. 1963 년에 이정식(李庭植)이 발표한 「한인공산주의자와 연안」(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 8)은 가장 먼저 연안파를 주제로 다룬 학술 논문일 것이다. 그리고 1976 년에 한국 고려대학교 출판부가 발행한 김준엽(金俊燁)·김창순(金昌順)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5)』는 조선 독립동맹의 역사를 처음으로 자세히 기술했다.

1980 년대 들어 한국독립운동 좌익단체나 공산주의단체에 관한 학술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노경채(盧景彩)의 「일제하 독립운동 정당의 성격 — 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 47, 1984), 김재명(金在明)의 「김원봉의 고투와 좌절(상하)」(『월간 경향』 1987 년 11-12 월), 한홍구(韓洪九)의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조직과 활동」(서울대학교 국사학 석사 학위 논문, 1988), 김영범(金榮範)의 「조선의용대 연구」(『한국독립운동사 연구』 2, 1988)와 「1930 년대 의열단의 항일 청년용사 육성 연구」(『한국독립운동사 연구』 3, 1989), 강만길(姜萬吉)의 「민족혁명당의 태행산 항일투쟁」(『사회와 사상』, 1989 년 12 월호)이다.

일본:

일본학계는 한국독립운동 좌익단체나 공산주의단체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일찍

시작해 주목받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81년 4월 靑丘文庫(일본 고베 사립도서관)에서 '조선민족운동사연구회'를 설립해 매달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기관간행물 『조선민족운동사 연구』(『朝鮮史叢』改題)출판하였다(총 10호 발행). 그 중 본문과 관련된 주요 학술 논문은 森川展昭의 「조선독립동맹의 성립과 활동에 대하여」, 1984년 1월호; 鹿島節子の 「조선의용대의 성립과 활동 - 김원봉의 동향을 중심으로」, 1987년 4월호; 鹿島節子の 「조선민족전선연맹에 대하여」, 1991년 7월호; 姜在彦의 「전후 만주의 조선의용군」, 1994년 10월호이다.

그리고 이 간행물은 또 '민족운동사상의 인물'로서 한위건(韓偉健<水野直樹>), 김원봉(金元鳳<鹿島節子>, 이상 1984년 1월호), 무정(武亭<森川展昭>, 1985년 2월호), 유자명(柳子明<堀内稔>), 한위건<水野直樹>, 이종암(李鍾岩<鹿島節子>, 1986년 3월호), 김산(金山<森川展昭>), 김성숙(金星淑<水野直樹>, 이상 1987년 4월호), 한빈(韓斌<森川展昭>, 1991년 7월호), 윤세주(尹世胄<森川展昭>), 1992년 8월호) 등의 프로필을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1980년대 일본 학자들이 발표한 관련 학술 논문으로는 鐸木昌之의 「잊혀진 공산주의자 - 화북조선독립동맹을 중심으로」(慶應大學『法學研究』제 57권 제 4호, 1984); 近藤正己의 「중국항일전쟁과 조선의용대」(東京『季刊 三千里』봄호, 1985) 등이 있는데, 주로 일제 시기의 정보자료를 인용해 한국독립운동 좌익단체와 한인공산주의자들의 시시비비를 논의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의열단 · 민족혁명당 · 한국광복군 · 조선의용대 · 화북조선동맹 · 조선의용군에 관한 논문과 저작이 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범위와 깊이도 크게 진전됐다.

본문은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의 창설 배경 및 조직기구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그 역사적인 업적을 간명하게 평가할 것이다.

II 중국 관내 지역 조선공산주의 운동

1. 상해 초기 조선공산주의자그룹

(1) 고려공산당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1919년 9월 러시아 경내 한인사회당(1918년 5월 창립)의 지도자 이동휘(李東輝), 김립(金立) 등이 시베리아에서 상해로 온 후 중국 관내(山海關以內) 지역 조선공산주의운동이 막을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직 중에 상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사회주의사상을 전파하고, 러시아 10월 혁명 경험을 선전하고 공산주의자그룹(小組)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한청년당(1918년 11월 창립) 멤버를 비롯한 상해의 많은 조선민족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그룹에 휘말려 1921년 5월 고려공산당을 설립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고려공산당은 소비에트러시아정부가 한국임시정부에 제공한 원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결국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로

분열됐다. 1922년 11월 고려공산당은 러시아 경내 이르쿠츠크에서 통일대회를 열었으나 파벌 싸움으로 말미암아 코민테른 제 4차 대표대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선언을 했다. 이후 상해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진로를 탐구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와 해외 각지의 대표가 새 정부 기관을 건설하자는 '창조파(創造派)'와 임시정부 개조(改組)를 주장하는 '개조파'를 형성하여 치열한 설전을 벌였으며 결국 아무런 현실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2) 조선공산당 해외지부(상해, 북경)

조선공산당은 1925년 4월 책임비서 김재봉(金在鳳), 김찬(金燦), 김약수(金若水), 조동우(趙東祐), 조봉암(曹奉岩) 등이 제 1차 중앙집행위원으로 당선됐다. 같은 해 11월 일제경찰은 신의주부터 공산당간부들을 대거 검거하였으며, 조선공산당 조직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 시기의 조선공산당을 '제 1차 조선공산당'이라고 통칭한다. 1925년 12월 서울에서 책임비서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김철수(金鋳洙), 구연흠(具然欽), 홍남표(洪南杓) 등을 중앙집행위원으로 하는 '제 2차 조선공산당'을 재건했으나 이듬해 '6.10' 만세 운동으로 인해 당조직이 다시 심각하게 파괴됐다. 같은 해 9월 서울에서 김철수를 책임비서로 하는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었으나 1928년 2월에 이르러 당조직이 또다시 치명적인 파괴를 당했다. 김철수 이후 안광천(安光泉, 1926년 12월), 김준연(金俊淵, 1927년 9월), 김세연(金世淵, 1927년 12월) 3명이 당의 책임비서를 차례로 맡는다. 이 시기의 조선공산당은 일반적으로 '제 3차 조선공산당' 또는 'ML 당'이라 불린다.

ML 당이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책임비서 차금봉(車今奉), 안광천, 한위건(李鐵夫), 양명(梁明) 등을 중앙간부로 하는 '제 4차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었지만 1928년 7월에 역시 파괴됐다. 코민테른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1928년 12월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 즉 이른바 『12월 테제』를 채택해 조선공산당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주체성분으로 하는 건당원칙을 강조하였다.

일찍이 제 2차 조선공산당 시기 상해에서는 이미 조선공산당 해외지부가 설립되었다. 조선공산당 상해지부의 대부분 멤버들은 일경의 검거를 피해 국내를 탈출한 간부로, 그 중에 책임비서 홍남표와 김찬, 조봉암, 조동우, 양명, 구연흠 등이 있었다. 1926년 여름 상해지부의 일부 멤버들은 평진(북평, 천진) 지역과 동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오로지 조선혁명운동에만 종사하였고, 다른 일부 멤버들은 중국의 국공합작을 지지하면서 자원하여 북벌전쟁에 투신하였다.

1927년 봄, 조선공산당 상해지부와 북경지부 및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당원들은 코민테른의 '일국일당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상해지부 멤버 중 여운형, 홍남표, 조봉암, 현정건(玄鼎健), 김원식(金元植), 정백(鄭柏), 구연흠, 무정 등은 가장 먼저 중공조직에 가입하였다.

(3) 중국공산당 상해조선인지부

1927년 9월 상해의 조선인 중공당원들은 중공중앙의 지시에 따라 강소성 법남구위(江蘇省法南區委) 상해 조선인(한인)지부를 구성했다. 조선인지부 초기 멤버 대부분은 한국혁명청년회와 한국유일독립당 축성회 회원이었으며, 중국대혁명 때 광둥(廣東), 무한(武漢), 남창(南昌) 등지에서 온 군인들과 모스크바에서 온 당원들도 있었다. 조선인지부 아래에는 몇 개의 소조(그룹)가 있었는데, 각 소조마다 대략 5-6명 내지 6-7명의 당원이 배속되어 있었다. 조선인지부는 중국공산당의 특수한 기층(세포) 조직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도밑에 당의 방침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의 사업을 직접 조직 집행하며 외곽 단체의 활동에 대해 막후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1930년대 들어 일경과 중국국민당 당국의 잔혹한 탄압과 박해로 말미암아 조선인지부는 공개적인 대중운동을 벌이지 못하고 주로 지하투쟁에 종사하였다. 또한 간첩과 새로 당내에 끼어든 이색분자들의 파괴 활동에 의해 당조직이 여러 차례 큰 피해를 입었고 다수의 당원들이 검거됐다. 1933년 전후, 조선인지부는 스스로 해산되었으며, 무정 등 일부 멤버들은 강서(江西)소비에트 지역으로 이동하여 중국노농홍군에 가입했다.

1932년 하반기에 상해 조선인지부는 비록 조봉암, 홍남표 등 골간 분자들이 속속 검거되어 조직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해반제동맹, 중국혁명구제회(救濟會)상해조선인분회, 상해조선인소비에트 우지회(友之會) 등 좌익단체를 이끌고 중공 상급조직에서 1933년 상반기에 맡겨준 혁명과업을 참담게 집행하였다. 결국 상해조선인지부의 대다수 멤버들은 일본제국주의자와 프랑스제국주의자 및 중국국민당 당국의 피비린내 나는 탄압에 못 이겨 상해를 떠나 평진지역과 동북지역으로 흩어져서 지하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중공조선인지부가 마비된 후 좌익 조선청년들 속에 이른바 '독서회'라는 그룹이 활동하였다. 이들은 '독서회', '독서반' 등 명의로 자주 모임을 가지고 사회과학연구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저작을 읽는 등 다양한 좌익서적을 통해 조선혁명의 진리를 추구하며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있었다. 당시 상해, 평진, 남경, 광주 등지의 조선 청년들 속에 이와 비슷한 조직들이 있었다.

2. 1930년대 관내지역 좌익조선청년그룹

(1) 혁명동지회(10월회)

1930년대 중반 좌익조선청년그룹이 남경의 김구특무대 (한국독립군특무대), 조선민족혁명당 등 조선민족독립운동단체 안에 기생하여 비밀리에 혁명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혁명동지회'(또는 '10월회')는 대표적인 좌익혁명조직 중 하나다.

피검자의 자백에 따르면 '혁명동지회'는 1934년 말 또는 1935년 초 남경에서 비밀리에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초기 조직자로는 중공당원 이유민(李維民, 또는 李正煥, 李滢來)과 정성언(鄭成彦, 또는 鄭國光), 김학무(金學武, 또는 金元吉, 金俊吉), 현철진(玄哲鎭), 왕동일(王東一, 또는 金東一), 왕신호(王信虎, 또는 金雄)

등이 있었다.^① 창설 당시 혁명동지회는 조직연혁, 강령, 규약, 당면한 과업,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 중 주요 결의안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성언을 모스크바로 파견하여 코민테른과 연락을 취할 것.

둘째, 각지의 조선민족주의단체를 마르크스주의 궤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셋째, 조선에 사람을 파견하여 혁명동지를 모집하고, 조선공산당을 지지하며 밀접한 연계를 맺을 것.

넷째, 국민정부의 반공활동을 제지하고, 중국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다섯째, 조직을 확대하되, 왕신호가 중앙군관학교 제 10 기 조선인학생을 책임지고, 이철중(李鐵重, 또는 程義夫, 李福仁)이 제 11 기 조선인학생을 책임지고, 김인철(金仁哲, 또는 金陽律, 具在洙, 姜一)이 제 11 기 조선인예비생을 책임지고, 왕춘수(王春樹)가 조선혁명간부학교 학생을 책임지고, 김철(金哲, 또는 金德根, 鄧鐵)이 광동군관학교 조선인학생을 책임질 것.

그 후 혁명동지회의 결의에 따라 1934 년 12 월 19 일에 이복흥(李復興, 李義興<李益星>의 형)은 간도 용정촌으로 파견되었고, 1935 년 1 월에 노영창(盧永昌)은 조선으로 파견되었고, 같은 해 7 월에 김파(金波, 또는 金燦奎, 胡一華, 李相朝, 金澤明)는 광주로 파견되었고, 같은 해 9 월에 김여수(金麗水)와 황석주(黃石柱)는 각각 상해 및 화북지역에 파견되었다. 각 책임자는 직업에 따라 중국내 조선민중상황을 고찰하고 민중을 조직하고 동지를 징취하고 반동분자 처벌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남경의 회원들은 조선민족주의단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원진파(袁振波)는 조선혁명간부학교 제 2 기 학생중에서 9 명의 동지를 징취하였고, 지일청(池一淸)은 조선혁명간부학교 제 3 기 학생중에서 20 여 명의 동지와 동정자를 징취하였고, 이철중은 군관학교 제 11 기 조선인 예비생 속에 작업팀을 설치하였고, 김인철과 한복(韓復, 또는 胡哲明, 韓仁燮, 韓震)은 군관학교 제 11 기 조선인 예비반내에서 10 여 명의 동지를 징취하였다. 1935 년 9 월까지, 혁명동지회는 남경, 상해, 광주 등지에 4 개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회원은 총 57 명에 달했다.

혁명동지회는 성격상 공산주의단체에 속하며 당시의 객관적 조건하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펼칠 수 없었으므로 민족주의단체에 의존하여 자신의 비밀조직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중국정부의 경제적 원조를 받고있는 김구특무대와 다수의 청년당원을 가진 조선민족혁명당은 혁명동지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②

1935 년 사이에 중국 주둔 일본군은 국민당 산동성 주석 한복거(韓復榘) 등으로 하여금 남경 정부에 반대하도록 부추기는 한편 천진의 일본조계 신수가(新壽街)아동(亞東)무역회사(밀수)의 일한랑인(日韓浪人)들을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암살 파괴 활동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관동군 특무기 관장 도이하라

^①石源华主编《韩国独立运动研究新探》，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0年，第71-76页。

^②日本外务省陆海军文书（第二辑），《韩国民族运动史料（中国篇）》，国会图书馆，1976年，第865页。